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를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10일)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은닉 성보 환수 '청신호' 켜졌다

### 서울고법, 문화재 은닉 사건에 '몰수' 명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유통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유죄 선고와 함께 법원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난당해 제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0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서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해왔다. 이들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부터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몰수 판결은 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계종 문화부 역시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중 주목할 것은 양형이 아니라 '몰수' 명령이다.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적지 않았다. 우선 39점의 불교 성보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 까지 제기한 상태다. 자신의 '은닉' 문화재를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A씨의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몰수' 명령은 이를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수십년간 사립박물관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도 문제가 됐다.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형량 같으나 '몰수' 선고**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불법 장물 모를 리 없어"**
**도난성보 판결 중요 선례**

은닉 문화재에 대한 몰수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했던 안상돈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향후 도난 · 은닉 성보 관련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몰수 선고에 대해 피해 사찰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93년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지난 25년간 부모 잃은 죄인으로 살았다. 이제 부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기쁜 마음뿐"이라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10월 30일 항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이뤄지면 해당 문화재들은 우선 국가로 귀속된 후 원 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사찰에 돌아가게 된다.



**秋心佛心** 제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뿐 아니라 늘 우리들 삶 속에 있다. 푸른 나뭇잎이 어느덧 붉게 물들어간다. 10월 28일 충북 단양 청련사 법당 위로 가을이 물들고 법당에서는 스님의 독경소리가 들려온다. 마음속으로 가을이 물들고 불심이 물든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 조계종, '신도시 불사'에 내년 예산 집중

### 일반회계 295억 원 · 특별회계 759억 원 편성

**신도시불사 특별회계 112% 증액**
**체험관 · 문화유산센터 건립 기대**
**대북교류 사업에도 종단 관심↑**

불기2564(2020)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늘어난 105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신도시시설건립특별회계가 112%나 증가해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불사가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95억8341만원 △특별회계 759억3421만5000원이다.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1.53%, 특별회계는 6.47%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다. 국고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올해 126억여 원이던 예산이 267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 불교문화홍보체험관과 현재 부지 변경을 검토 중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 건립부지는 봉은사 일원과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이 검토되면서 부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185억 원이던 시설특별회계는 신도시 종교매입 대금 지출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53억2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외에 특별회계서는 '백만원력 특별회계' 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백만원력 특별회계는 제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탄력 받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40억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사업 주무부서인 백년대계본부도 기획실 산하에서 별도의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로 변경됐다.

일반회계서는 총무부가 종무원 인건비 상승과 2020년 정기분한신고 등으로 인해 11.13%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포교원이 담당하던 군종특별교구 보조금 2억여 원이 총무부로 이관됐다. 기획실은 종단 홈페이지 개편과 공유서버 및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무엇보다 올해 예비비로 집행한 국가법령 제 · 개정 관련 예산이 609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불교영상콘텐츠 제작과 방송활성화를 위해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내년도 화엄사 · 대흥사 · 백양사 · 직지사 등 4곳의 교구본사에 대한 전통사찰 부동산 공부 정리를 위해 1억2330만원의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문화부는 신규사업인 불교문화대전(1억 원)을 비롯해 △북한성보문화재 DB구축(2700만원) △성보문화재 환수지원 이운식과 학술세미나 · 성보관련 체계정비(2567만원) △불교미술진흥(3530만원) △불교음악진흥(5000만원) 등의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예고했다. 올해 대비 34.61% 늘어난 11억6777만원이다.

사회부 역시 △종교 · 종단 간 연대교류(6126만원) △사찰환경보존활동 · 국제세미나(2775만원)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5894만원) △국제교류(1439만원) 등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색국면인 남북관계에서 조계종이 주체로서 대북관계를 풀어갈 개별적인 사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늘렸다. 더불어 사업부는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불교경제사업추진위원회' 예산을 소폭 늘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발을 맞췄다.

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은 "관행적 예산에 대한 각 부처 구조조정과 성과미흡사업의 감액 예산 편성 등 업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각종 신규사업 지원을 비롯해 신도시 불사, 사찰규제법령 개선 등 불교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이 같은 예산안은 11월 5일 개원하는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서 최종 심의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동국대 이사 · 감사 후보 복수 추천

### 조계종 종관위, 10월 29일 제115차 회의서

**승가학원 이사 후보 복수추천**
**동국대 경주 총추위원 구성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와 감사들의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혜일, 이하 종관위)는 10월 29일 열린 제115차 회의에서 동국대와 승가학원 임원 후보 복수 추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종관위는 임기 만료 예정인 동국대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했다. 12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돈관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돈관(은해사 주지) · 덕조(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이, 12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성타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정문(중앙종회의원) · 정수(불국사승가대학장) 스님이 추천됐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현문(통도사 주지) · 범해(중앙종회의장) 스님이, 정념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원명(봉은사 주지) · 자현(중앙승가대 조교수) 스님이, 성효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성월(前 용주사 주지) · 성효(총무원 호법부장) 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다.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동국대 감사 주경 스님의 후임 후보로는 법원 스님(직할)의 추천으로 일화 · 연광 스님이, 설도 스님의 추천으로 우봉 · 도윤 스님이 추천됐으나 차기 회기로 이월해 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4일 감사직 임기 만료되는 호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호산(중앙종회의원) · 성화(초심호계위원) 스님이 복수추천됐다. 승가학원 임원도 복수추천됐다. 사직한 본각 스님의 후임 후보로는 혜도(자룡사 주지) · 도현(구현사 주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부총장급)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된다.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종단 측 추천위원으로는 혜일(종립학교관리위원장) · 삼혜(총무원 기획실장) · 원명(봉은사 주지) · 원명(중앙종회의원) 스님이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 韓中日불교,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선언

###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주해대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 불교도들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분쟁을 봉합하고, 각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30일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광동성 주해대회에 참석해 중국 · 일본 불교대표단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와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가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재확인하고, 오늘날 불교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보타사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서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3국에서 꽃피운 불교문화를 상찬하면서 불교가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지금 세계와 한중일 3국 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특히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전 세계적 관심이자 과제"라며 "한국 국민들과 불교계는 간절히 화합을 희망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웃나라의 불교계 역시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에 입각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와 인류공동체' 주제로**
**세계평화 기원 · 학술대회 등**
**한국대표단 100여 명 참가해**
**3국 공동선언문 합의 이끌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연각 스님은 "〈화엄경〉에서 심(心), 불(佛), 중생(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했다. 일체중생은 체성평등이자 동체불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평화의 교의는 무아이타의 정신이고, 방편의 지혜이며, 원한을 풀고 분쟁을 메워 장벽을 돌파하는 힘"이라고 치사했다.


3국 불교대표단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뒤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 번째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 역시 '인류운명공동체'에 공감하면서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일원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참으로 무력한 나임을 반성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3국 불교대표들의 긍정적인 입장에 따라 3국 불교도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감대를 모아 다른 문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법맥과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가 이어지도록 노력키로 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 불교도는 △자비평화 교의를 펼치며 선교방편의 지혜로 원한을 풀고, 차별을 없애며 분쟁을 봉합 △중도원융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와 기타종교, 기타문명의 대화교류 △연기공상 사상에 따라 환경보호, 저탄소, 재활용 등 생활방식 확대 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인선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 "뜨거운 수행바람, 널리 퍼지길"

### 조계종 수행바라미 회향, 20개 단체 참여



지난 5개월간 주요 수행법의 확산을 위해 수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수행바라미가 10월 27일 회향했다.

계율과 간경, 염불과 참선 등의 5대 수행 정착을 위한 수행바라미가 회향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10월 27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2019 수행바라미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회향법회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수계법사로 한 수계식과 1차 봉정암부터 5차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한 실무자들을 포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주요 수행법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 시작한 수행바라미에는 5개월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수불자연합회 △언론사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대한불교청년회 △경제인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예비역장성불자회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각 교구신도회 등 20개 단체에서 175명의 종단, 신도 주요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수행바라미 회향에 대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5개월간의 수행 여정을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생활 속 수행이란 새로운 불교신행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수행바라미 정진연수를 통해 향후 포교, 신행단체의 수행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초격 스님 "승려복지 · 인재불사 최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취임법회**
**남양주시에 쌀 기탁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공식 취임과 함께 교구 내 안정적인 승려복지와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교종본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모범 교구본사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취임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 등 내빈스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주지 초격 스님이 10월 25일 취임법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취임식에서 앞서 봉선사를 이끌어온 前주지 일관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운허 노스님과 선대스님들의 유지를 받들고, 어른스님들을 모시며 스님과 신도들이 행복한 교구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격 스님은 이어 △교구 내 승려복지 △모범적 포교방법 개발 △수행환경 조성 △후진양성과 인재불사 △조사 선양사업 △재정자립 및 투명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초격 스님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50여 년이 흐른 지금 불교는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타종교에 뒤쳐진 모습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봉선교구와 한국불교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불사에 모두 역사의 일원으로 변화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은 조실 월운 스님을 대신해 "신임주지 취임을 기념해 1억 원을 들여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할 쌀을 마련한 초격 스님의 뜻이 대단하다"며 "앞으로도 주지 취임식에 이처럼 이웃을 위한 일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봉선사는 한국불교 근대화와 교육의 산실이었다. 봉선사가 종단과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장엄한 길을 새로운 주지스님을 위시해 봉선사 사부대중이 함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원로의원 일면 스님 또한 주지 초격 스님의 다양한 수행이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도권 문화중심지로 부상한 남양주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봉선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종무행정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은 선지식의 유지를 이어가는 교종본찰 봉선사가 불법(佛法)을 선양하고, 대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교구본사가 되길 기원했다. 이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후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화환 대신 공양을 받아 마련한 쌀 20kg 1000포대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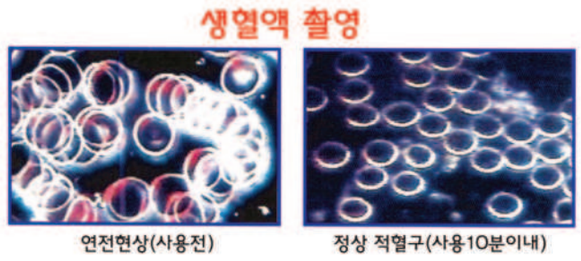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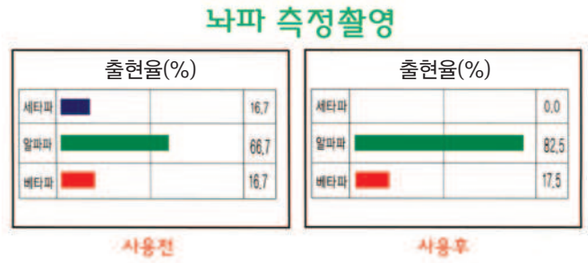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 “韓日, 의견 나누고 자비롭게 대화하라”

## 조계종 교육아사리회, ‘한일 관계’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첨예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갈등에 대해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불교적 해법을 내놨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과 교육아사리회(회장 금강)는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도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교육아사리회의 첫 공식 학술행사였던 이날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심포지엄에서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교육아사리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2부 학술대회에서는 ‘발전적 한일관계에 대해 불교적 제언’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진행형인 한일 갈등에 대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불교적 해법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승가 갈등의 대표 사례인 코삼비 사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여섯 가지 화합 방법을 갈등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6가지 화합 방법으로 △같은 계율로 함께 지켜라 △의견을 함께 나눠라 △공양물을 똑같이 수용하라 △한 장소에 같이 살아라 △항상 자비롭게 말해라 △남의 뜻을 존중하라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의견을 나누고 항상 자비롭게 말하며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정운 스님의 주장이다.

정운 스님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자신의 종교처럼 존중하듯 한일 양국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중을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운 스님은 “매년 8월 15일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감정선이 다르다”면서 “일본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돼 많은 일반국민들이 희생됐다.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상흔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교육아사리회는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도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단체 창립 첫 학술행사 개최**
**부처님 설한 화합 방법 통해**
**첨예한 한일 갈등 해법 제시**

**기초 교리 · 수행체계 확립 등**
**승가교육 발전 방안 제언도**
**진우 스님 “제언들에 공감”**

‘애증의 한일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한일 갈등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진단했다. 특히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 ‘증오의 교육’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역사교육학적 논점 중에는 ‘증오를 가르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 있다. 역사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특정한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 파국은 안될 일이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증오의 판단에 입각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아사리 역할에 대한 제언들이 이뤄졌다. 교육아사리회 부회장 현견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수행 및 교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교육아사리가 이 같은 체계와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문불전 · 응용불교 · 선불교 등 7개 분야로 분류된 교육아사리 전공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교육원에 제안했다.

현견 스님은 “각 분야의 교육아사리 스님들에게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장을 종단과 교육원에서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교육아사리 스님들 자체적으로도 힘을 모아 하나의 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원에서 발행한 백서를 통해 승가교육을 회고한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교육아사리회 부회장)은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단의 사상적 위상과 현안 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단의 싱크탱크 교육아사리 제도를 역점 사업으로 생각했다. 이는 불교 교학자 DB관리를 실행해온 저간의 궤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아사리 스님들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초 교리 수행 체계 확립과 승가교육 내실화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기초 교리와 수행 체계에 없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기초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면서 “기초 교리 체계 확립은 승가교육 내실화와 연결된다. 이 같은 승가교육 불사에 교육아사리 스님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가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교육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승가교육 내실화는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 같은 목표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각계 스님과 재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말했다.

# 초심자 신행 안내 체계화 모색한다

## 조계종 포교원 10월 30일 지역신행 전문가 좌담회 개최

사찰을 찾은 일반시민들과 신도들이 신행활동을 함에 있어 종단 차원의 안내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30일 전법회관에서 ‘지역별 신행전문가 좌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을 주제로 종단 차원의 신행문화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포교원은 11월 21일 부산지역 신행전문가 회의와 11월 26일 광주지역 신행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신행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번 신행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신행모범사례와 신도요구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찰측에서는 서울 수국사 호산 스님, 안동 대원사 등안 스님, 인천불교회관 일지 스님, 양양 낙산사 포교국장 수미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행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통도사 창원포교당 주지 무성 스님과 권순찬 중앙신도회 부회장,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수석부단장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특히 수국사의 경우 나눔음악회와 스포츠 포교의 성과, 대원사는 달빛걷기 명상과 나홀로 암자순례, 인천불교회관은 기본신도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법회 활성화, 낙산사는 생애주기별 포교 및 불자마을 조성, 농어촌 포교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결국 스님과 신도간의 유대감과 신뢰가 기반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인재불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개인에 대한 포교가 아닌 마을 공동체, 전법보다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포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도들의 신행을 이끄는 ‘신행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인 스님용 ‘신행 지침서’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신행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초의선사 다향, 가을 고궁서 만끽

## 동아시아차문화硏, 10월 26일 고궁다담 개최

단풍이 한창인 10월 26일, 아름다운 조경과 건축으로 유명한 창덕궁에서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다회가 열렸다.

‘고궁다담(古宮茶談)’ 고궁에서 다담을 나눈다는 이번 전통다회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가 주관했다. 다회 자리가 열린 곳은 창경궁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통명전이었다.

10월 19일 창덕궁 낙선재에서 고려전통차를 시연한 1차 고궁다담에 이어 열린 이번 고궁다담서는 조선 후기의 전통차가 선보였다. 이날 제공된 차는 녹차로 19세기 초의 스님 이후 선비들이 수양의 의미로 즐겨 마시던 차였다.

행사를 주관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조선 초의선사의 다맥을 이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다법”이라며 “우리가 흔히 차를 우려낼 때 70도의 물로 우려내지만 여러 기록을 보면 뜨거운 물에서 우려마시는 탕법이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늘 차는 사찰에서 전해지는 탕법”이라고 밝혔다


고궁다담에 참여한 대중들이 조선 후기 녹차를 음미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어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차를 만든 이들의 정성과 차를 마시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인 차문화가 역시 그만한 격조가 있는 곳에서 대중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고 다회 의미를 덧붙였다.

이날 다회에는 영화배우 류승룡 씨를 비롯해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대거 찾았다.

류승룡 씨는 “고려단체를 비롯해 전통 차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동안 무지했구나 느꼈다. 일상사 다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많이 마셨는데, 현재 우리들은 커피문화로 차문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단아한 우리 전통의 차문화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고려 현화사 석등 다시 대중 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0월 30일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개성 현화사 석등을 재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낙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서는 열이 나지 않는 LED전등으로 임시로 불이 밝혀졌다.

석등이 있던 현화사는 현종(玄宗, 재위 1009~1031년)이 불우하게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사찰로, 왕실의 행차와 법회가 열리던 고려의 대찰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일본인 골동상인 곤도 사고로에게 이 석등을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박물관 이전과 함께 자리를 옮겼으며, 2005년 10월 28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다. 전체적인 상태 보강과 각 부재의 강화처리를 위해 2017년 9월에 해체하여 이후 3D스캔 촬영 및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 취임법회

일 시
불기 2563(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장 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룩한 진리의 바다를 이룹니다.”

한국불교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실천하는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신 쌀로 보시하시면 스님 요양시설, 미혼모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쌀보시 안내 : 쌀 20kg 1구좌 10만원
- 쌀보시 계좌 : 국민은행 208601-04-073935(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문의 : 02)3411-8103~4, 010-4111-9031
- 사부대중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취임식 준비위원회

# “최고의 동아리방서 포교 원력 펼쳐요!”

## 대불련총동문회, 10월 30일 경희대 동아리방 리모델링 성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불회 동아리방 팻말을 최재영 회장, 이상권 동문회장, 박유진 대불련 회장,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사진 왼쪽부터)이 함께 달고 있다.

“동아리는 학생들간의 친목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만큼 불교신행 외에도 스터디나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불교동아리의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선후배들의 원력을 모아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백효흠) 산하 대학전법지원단은 10월 30일 경희대 학생회관 4층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018년부터 캠퍼스 포교 활성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 제주대, 제주교대, 경북대,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 경희대서 1차 사업이 종결됐다.

이번 리모델링된 경희대 동아리방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깔끔한 흰색으로 된 기구에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꾸며졌다. 노트북을 놓고 공부가 가능한 책상들과 TV, 냉장고 등도 설치되어 불자 학생들의 편의를 더했다.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에 경희대 불교학생회(경불회) 선후배들은 기대를 표했다.

최재영 경불회 회장은 “경희대는 공부할 곳이 부족해 시험기간이 이른바 전쟁터다. 불교동아리방이 공부방 역할도 하고 50여 불자학생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불련에서도 캠퍼스 포교에 신경을 써 많은 곳에서 신입회원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살아 움직이는 불교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방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경불회 관계자들.

**2000만원 예산, 쉼터 구성**
**신입생, 회원들 활동 터전**
**소모임, 스터디 등 활성화**

이상권 경불회 동문회장은 “예전에 비하면 5성 호텔처럼 보인다. 수시 때 기도도량으로 활용해 호평을 받는 등 불교동아리방은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이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 서울서도 대학생 포교를 선도하는 경불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경불회 법당에는 다른 법당과 달리 삼존불이 모셔졌다. 경불회 회원인 황해정 학생(아동가정학과 17학번)은 “예전 동아리방에 비해 쉴 곳이 많아 좋다. 친구들도 데려오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승태 지원단장은 “학교 내에서도 불교동아리방이 불교동아리방이 아닌 예쁜 동아리방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향후 동아리방 활성화 및 운영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제공해 대학포교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유진 대불련 회장과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리모델링 1차 사업을 계기로 종단에서 대불련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백 회장은 “10년 전만해도 조계종에서 대불련 지원금이 80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대학생 포교로 전환되며 대불련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회장은 사찰에서도 대학생 불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캠퍼스에서 대학생과 접점이 높은 것은 대불련”이라며 “최근 대불련의 노력으로 대불련 신입회원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지원 등 불교 미래를 밝히는 인재불사에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불련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은 12월 서울교대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예정이다.

## “삶의 한파 극복 짜장면으로”

### 아름다운동행, 10월 29일 보현의집서 노숙인 짜장 공양

추운 가을 날씨에 고생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계 공익법인이 자비행을 펼쳤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10월 2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 보현의집에서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짜장공양을 올렸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웃음꽃이 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0월부터 ‘자비의 밥차-찾아가는 짜장 공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임이사 자공 스님과 봉사자들은 보현의집 외부에 마련된 솥에서 200인 분의 짜장을 직접 볶고 일일이 배식했다.

자공 스님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불자들의 자비나눔행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 그릇의 공양에 불과하지만 따뜻한 정성이 이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양을 받은 노숙인들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은 ‘찾아가는 짜장 공양’ 캠페인을 통해 매월 2회씩 복지관을 찾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명상을 입히다

### 11월 14~1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

올해 7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전 세계적인 명상 열풍에 맞춰 한국 전통의 치유 ·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외연을 넓힌다.

2019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명상: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명상을 비롯한 한국 전통치유 및 수행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불교 관련 업체들의 부스 외에 별도의 대형 프로그램인 ‘명상 컨퍼런스’와 ‘서울 릴렉스 위크’를 기획했다.

먼저 명상 컨퍼런스는 3가지 공인 명상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연사들의 안내에 따라 체험하는 시간이다. 15일에는 의료인류학자이자 불교도인 조안 할리팍스 박사가 창안한 죽음에 관한 명상(Being with Dying, BWD)을 김정숙 BWD코리아 대표와 미국 우빠야 선센터 수석교수진인 앤토니 백 워싱턴대의대 교수, 류재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가 설명한다. 이 명상법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 명상 훈련으로 각광 받고 있다.

16일에는 하버드 의대 임상심리교수인 거머 박사와 자기연민 연구 선구자 네프 박사에 의해 개발된 마음챙김 자기연민 명상(Mindful Self-Compassion, MSC)이 이어진다. 여기에는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과 카렌 노스케롤라이나 의과대 교수, MSC 지도자 효림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17일은 존 카밧진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기법을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후 진메이 대만 최초 미국 MBSR 인증지도자, 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강연한다.

윤호섭 기자

## 선무도 35년, 대중포교 미래 밝혀

### 경주 골굴사, 10월 26일 선무도 35주년 기념법회


선무도가 자리잡기까지 기여한 스님들과 대중들이 35주년을 맞아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고대 심신수행의 방편으로 활용됐던 선무도(禪武道) 35주년을 기념하고 승병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선무도 포교 35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대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정경화 한국전통무예총연맹 총재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법회서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로 마음과 몸을 함께 수행하는 선무도와 맥이 닿아 있다”며 “선무도 35주년을 맞아 선무도가 세계인의 정신을 이끄는 큰 움직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경화 총재도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포교하는 적운 스님이 원력을 더욱 널리 펴 선무도가 국위선양과 불교 포교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선무도 대금강문도들과 함께 해준 제자들에가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무도는 대중의 생활수행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법회서는 골굴사 선무도 사천왕 공연단과 태혜신카르마프리무용단의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법회 후에는 승병과 선무도를 주제로 한 특별 학술대회도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창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고려 초중기 정변에 있어서의 승려와 승병’을 주제로, 문무왕 동명대 교수가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승병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아남툽텐 린포체 방한 청년과 만나다

### 12월 5~16일 집중 수행 등 개최

티벳 로종 수행 지도자인 아남 툽텐 린포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한한다. 다르마타코리아는 아남 툽텐 린포체를 지도법사로 12월 7~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대중 수행을, 12월 5일 부산 홍법사에서 대중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안거 수행, 12월 16일에는 서울대에서 ‘청년과의 대화-청년, 길을 묻다’를 진행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베트 닝마파 전통에서 수행한 수행지도자로 지난해 서울 국제선센터와 백담사 등에서 티벳 전통 수행인 로종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켐포 쵸펠, 라마갈왕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 가르침 '필름'에 담아 대중 속으로

## 한국영화 100년, 불교영화 100년

지난 10월 27일은 '영화의 날'이었다. 이는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가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된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로 올해로 꼭 100년을 맞았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한국불교영화 역사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영화사에 있어서 불교영화는 종교영화이지만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만다라〉, 〈아제아제바라아제〉, 〈화엄경〉, 〈유리〉 등 흥행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

한국 불교영화는 현재 약 50여 편 정도가 제작·상영됐다. 이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와 신광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종교 계열 영화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함께 한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의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찰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돼 지금도 수작으로 손꼽힌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어던 신상옥 감독은 1950년대 〈꿈(1955)〉과 〈무영탑(1957)〉을 내놓는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또한 양주남 감독은 1958년 〈종각〉을 통해 비극적 생의 연쇄를 통해 연기적 세계관을 표현해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다. 실제 이 작품은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됐다.

### 양적 발전하는 불교영화

1960~70년대 사회가 성장하면서 영화산업도 점차 확대됐다. 한국 불교영화도 마찬가지로 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호국불교의 개념을 가진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을 발표했다. 석굴암 완성 과정과 석불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의 홍성기 감독의 〈대석굴암(1965)〉과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이차돈(1962)〉도 넓은 의미에서의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1978)〉을, 전조명 감독이 〈서산대사(1972)〉을 제작했다.

이밖에도 효(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용민 감독의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이다.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은 신상옥 감독의 〈꿈(1967)〉과 〈다정불심(1967)〉, 장일호 감독의 〈석가모니(1964)〉이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중있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했다. 물론 소재주

**한국 불교영화 시초 '마음의 고향'**
**80년대 구도소설 인기끌며 영화화**
**불교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조폭코드 결합한 상업영화 제작도**
**최근엔 불교 내포한 영화 인기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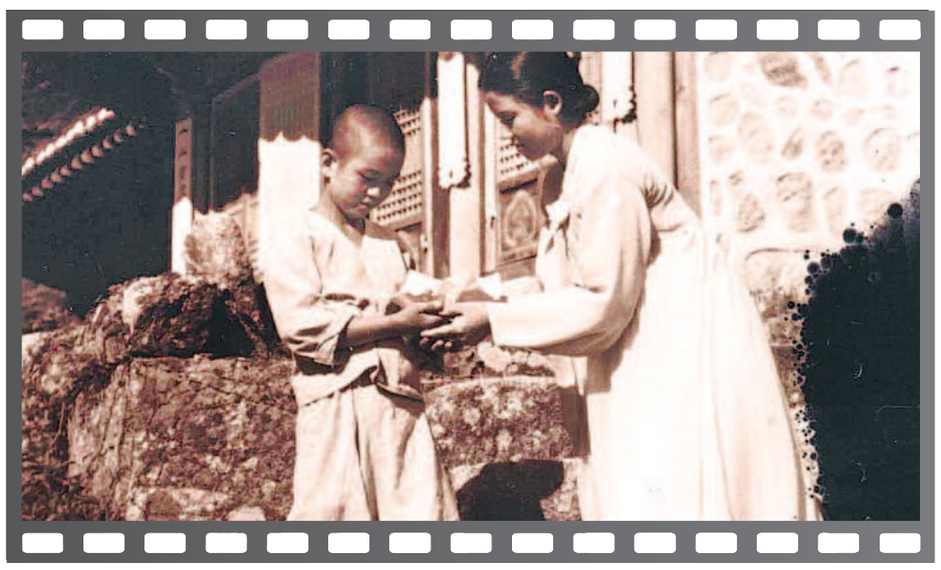
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이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다.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영화화해 개봉에 성공한 작품은 〈석가모니(1964)〉가 유일무이하다. 이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영화화가 추진되기는 했으나 이뤄지지는 못했다.

### 한국 불교영화의 완성기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불교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며,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대종상·영평상 등 국내 영화상은 물론 해외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었던 것도 이 시기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 스틸컷. 한국불교영화 시초로 평가받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본령인 영화 〈만다라〉의 한 장면.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득 감독의 〈우담바라(1989)〉이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제아제바라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녀(강수연 분)라는 속퇴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으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품으로 불교영화 70년사 안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작 중에 수작이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작 배용균 감독 본인은 불교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적 소재를 삼고 있고 그 안에는 선적 사유체계가 수준 높은 영상 이미지로 함축돼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되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다. 또한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유리(1996)〉 등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이야기로 수도의 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 번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이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송희복 교수는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불교 영화"라고 평가했다.

###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는 상업 영화로 완전히 영화업계가 자리를 잡았고, 불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다는 반증이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이두일 분)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가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이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별다른 불교영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 종교 분야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독립·다큐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 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기는 하나 너무 파편적이고 난해해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제작·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찬찬한 영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불교를 소재로 하거나 불교적 해석들이 가능한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과 함께 1·2〉다.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영화화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장재현 감독은 불교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 〈사바하〉를 올해 개봉했다. 불교적 소재와 장치들로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내용은 살펴보면 기독교적이라는 해석들도 적지 않다. 불교의 외피를 입은 '종교적 혼종' 영화나 드라마는 근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일제강점기 일본불교 포교 톺다

###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 군산 동국사 공동 학술대회

최근 한일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 2019년 추계학술대회가 군산 동국사 주최로 열렸다.

10월 26일 군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한반도 포교'라는 대주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최고의 불교계 종단인 정토진종 오오타니파의 국내 포교활동을 다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일본 승려이자 동아시아불교운동사 연구회원인 다이토 사토시 스님이 '3.1 독립운동과 진종 오오타니파 조선포교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권동우 영산선학대 교수가 논평했다. 이어 니이노 카즈노부(나고야 오오타니고교 교사) 스님이 '진종 오오타니파 목포별원의 활동의 일단'을 주제 발표하고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논평자로 나섰다. 마지막으로 양은용 명예교수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와 오하시 소쿠죠의 인양귀국'에 대해 발표했다.

스님은 "한일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종교계, 한일불교학회는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한일관계의 역사교류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극락암서 찾은 혜암 스님 발자취

### 혜암선사진흥회, 내년 탄신 100주년 선양사업 추진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치열한 수행정신을 강조한 혜암 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순례법회가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10월 26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수행처 참배'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 등 문도회 스님 30여 명과 전국 각지에서 찾은 재가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경봉 스님과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정진해 세상을 맑히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2017년 남해 용문사를 시작으로 하동 칠불사, 송광사, 영원사 등 수행 현장을 찾아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극락암은 5차 순례이며 내년 4월에 혜암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는다. 100주년을 맞아 해인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선양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바른 수행으로 불국정토 건설"

### 영천 거조사, 10월 26일 기해년 오백나한대재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6일 경내 영산전 앞마당에서 '2019 기해년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나한재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고승대덕과 불자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당차문화원의 육법공양과 헌공, 법어, 526 나한에 올리는 만발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은 "거조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오백나한이 계신 성지로서, 오백나한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며 "거조사에서는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보조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고 설명했다.

거조사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맥이 끊어진 나한대재를 2005년 복원해 '526 나한'을 모시고, 나한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영유아 유기, 국가제도 보완 필요"

###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전문가 간담회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논의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 절차가 어려워 아이의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입양마저 적기를 놓친다는 제도적 한계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10월 28일 부산 KNN타워 2층 회의실에서 '영유아 유기 예방 및 행복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안전시스템을 돌아보고, 최대한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서는 먼저 자가 출산의 경우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DNA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자 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아기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보호할 곳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산모들의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승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아기 유기는 여전히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으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심리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찾기조차 어렵고, 결국 출산이 다가오면 진료기록이 없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끝내 대부분의 산모들은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도록 권유 받지만 불안에 극도로 예민해져 할 수 없이 자가 출산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가 출산, 출생 신고 어려워**
**산모 불안에 극단적 방법 선택**
**영유아 유기 예방 선행돼야**
**생명 보호 베이비박스 필요**

문제는 자가 출산을 하더라도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DNA검사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뤄진 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신생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대다수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범 사무처장은 "출생증명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청 행정기관마다 매뉴얼이 달라 많은 산모들이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가 복잡해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유선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출산 후 한 달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DNA검사에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자가 출산을 한 산모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출생신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출생신고는 법률상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자가 출산인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동안 아기는 방치된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 출생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박스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 기관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밀출산제가 영유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적절한 문제 해결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2014~2018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인계된 아기가 1025명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가 영유아 보호의 경우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 행복드림센터 운영위원장 심산 스님,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석민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이유선 변호사,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과 과장이 참여했다.

심산 스님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시대 생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에 지암 스님

### 10월 25일 취임법회 봉행
### "총림 · 종단발전 위해 매진"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지암 스님이 대중에게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의 정신적 지주인 방장에 지암 스님이 추대됐다.

선암사는 지난 10월 25일 대웅전에서 선암사 문도스님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심정사 회주 지암당 법성 대종사를 방장으로 추대하고 취임행사를 봉행했다.

지암 스님은 1939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1957년 선암사에서 종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광주 관음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강원 사집과와 문빈정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한 후 선암사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1957년 세심정사 창건, 1990년 광주전남종무원장, 1995년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1997년 선암사 주지, 2006년 태고총림 선암사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태고종 원로회의 원로의원과 세심정사 회주를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선암사 원로회의에서 신임 방장으로 추대됐다.

지암 스님은 이날 취임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몸은 항상 부지런하고 청정해야 한다. 출가자의 말은 항상 신중하고 남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출가자의 뜻은 항상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작금의 종단에는 사문의 본분사를 망각하고 청정해야 할 승가를 혼탁하게 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일에 누가 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원로대덕과 재적대중의 의중을 잘 살펴 총림과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했다.

주지 시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큰스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런 어른을 방장으로 모신 것은 우리 태고종단의 큰 자랑이자 기쁨이다. 큰스님의 행장을 뒤따라가며 더욱 정진하고, 우리 종단이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거듭 태어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삼보사 선문답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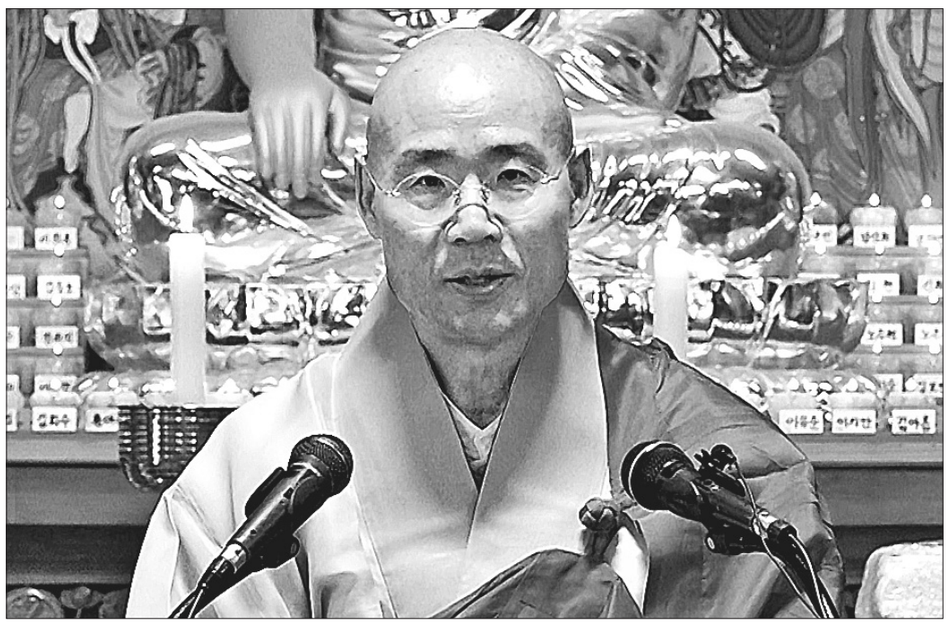
서울 은평구 삼보사는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9선문답 특별대법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선지식들이 무문관 공안을 가지고 법석을 편 가운데 10월 27일에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이 무문관 제6칙인 세존염화를 주제로 법문 했다. 이날 선문답법회 법문을 지상중계 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 마음법, 유추 말고 오롯이 참구하라

**주제 : 무문관 6칙 · 세존염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영진 스님**은… 백담사 유나로 41년간 화두 하나 들고 정진의 길을 걸어 왔다. 무문관 폐문 정진도 수년간 했다.

〈무문관〉을 가지고 법회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후에 당나라, 송나라 선의 황금시대를 이루는데 선사들의 말씀과 언어, 법문이 모아져서 1700공안이라 합니다. 이중 48가지를 따로 엄선해 만든 것입니다.

화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선방에서는 언어도단의 경지를 말합니다. 문자를 쓰지 않고 말길도 끊어진 자리가 그 자리라 하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르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졌겠습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도 다양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친절한 분이 어디있겠습니까. 서로 입을 열면 그르치지만, 그 자리를 제시하고 가는 길까지는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제 6칙 세존염화입니다. 세존께서 꽃을 들으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선종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를 얘기하면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교화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주로 아함12년, 방등8년, 반야21년, 법화열반8년이라고 교상판석에서 합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영산회상, 영축산에서 법문하실 때입니다. 법문을 하시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스러운 조짐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꽃비가 흩날릴 때 말씀을 하지 않고 꽃을 하나 들어보이십니다. 선의 원류를 바로 여기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시다가 드디어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은것을 선의 삼처전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종 최초의 역사이자 시작입니다.

가섭이라는 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 두타제일이라고 하여 십대 제자 중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사리불, 목건련 등도 있었지만 마하가섭이 부처님 신임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꽃을 들어보였다는 것은 말씀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염화'라고 하는데 오늘날 염화실이라고 함은 사찰에서 조실이나 방장 스님이 쓰시는 곳을 말합니다. 심인을 이은 분이 쓸 수 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꽃을 드니 1250명이 어리둥절했는데 가섭만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는데 한분이 웃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전한 내용이 정법안장, 열반묘심이었습니다. 열반은 부처님이 전한 최고 깨달음입니다.

### 열반묘심은 무엇일까?

부처님 살아 생전에 유명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사문이시여, 당신이 내세우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니르바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니르바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는 '바라문이여, 당신의 질문은 니르바나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 **선의 시작이자 원류 '세존염화'**
> **'염화', 말 필요없는 근본 자리**
> **禪은 시작도 끝도 말없음으로**

답답한 바라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가 나가는 바라문을 불러 세웁니다. '바라문이여, 저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대답해 주겠소.'

바라문이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니르바나는 무엇입니까.' 사리불이 답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이 불꽃이 완전히 연소된 것을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즉, 탐진치 삼독심이 완벽하게 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재차 묻습니다. '니르바나를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불이 답합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나무가 완전히 다 타버린 다음에 그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불보다 못하셔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직접 답하기보다는 깨닫기를 유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합니다. 이후 열반이 죽음을 의미하게 된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여열반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마저도 소멸됐기 때문에 완벽한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는 유여열반, 돌아가셨을 때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니르바나가 죽음도 의미하게 됐지만 완벽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진실한 본질은 무엇일까

실상무상. 진실한 모양은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한 모양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모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조 혜능 스님은 무상무체라 했습니다. 모양은 없는 것으로 본질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당에 가득한 이들은 저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모양 이전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법신으로 '본질' 입니다. 원만노신 노사나불은 원만한 상호를 갖춘 '상' 입니다.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은 화신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으로 나투는 것입니다. '작용' 입니다.

체상용은 중국의 원리지만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없다. 일단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 무상입니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양을 초월한 것입니다. 모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다해도 안과 밖이 있으면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실상은 가장 큰 근원 자성자리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혜의 눈, 진리의 눈, 부처의 눈으로 안목이 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무리 모양으로 볼 수 없어도 작용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실상입니다. 사계절이 오고감도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당이 원래 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건축자재가 모여 법당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법당의 주인이 무엇일까요. 앉아 있는 대중, 법문하는 저, 이 자리를 연 지원 스님 등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중생의 안목으로 보니 차별상이 보이고 긴 것 짧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실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모양에서 떠난 자리마저도 중생의 눈으로 보면 모양입니다. 어느쪽으로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법

미묘법문은 열반에 있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고 합니다. 교 밖에 달리 전한다고 하니 선입니다. 바로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서산 대사는 '선시불심' 선은 부처님의 마음, '교시불허' 교는 부처님의 말씀, '계시불행' 계는 부처님의 행이라 정리하셨습니다.

선은 말없음으로 시작해서 말없는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는 말 있음으로 시작해서 말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점은 같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입니다. 진짜 달은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이 있는 곳은 알아도 달이 내 것일 순 없습니다. 선수행을 통해 달이 내 것임을 아는 것이 참선입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은 실상의 자리로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통해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이 교설한 이유는 부처님 당신이 하지 않고서는 중생구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위치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의 종지를 깨달은 제자로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세상입니다.

무문관을 지은 무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면구담이 방약무인이라. 압량위천하고 현양두매구육 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황면구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양민들을 천인으로 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가섭에게 정법 안장을 전하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무문 스님의 내 안목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 정법을 어찌 전했을까라고 합니다. 이어 가섭이 웃지 않았다면 정법을 어찌 전했을까 합니다. 만약 정법안장이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세상 사람을 속인 것 아닐까. 또 정법안장이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찌 가섭 한 사람에게만 허용했을 것일까란 의문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도 무문 스님의 새까만 후배로서 무문 스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만약이 어디있소란 말입니다. 선은 유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이란 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 역시 필요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문 스님도 이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심에 친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무문 스님은 화두를 하나 더 던진 것입니다.

선방에서는 저 사람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수레가는 소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선은 유추하지 않습니다. 화두도 어째서 그럴 것이다 유추하는 순간 사구가 됩니다. 마른똥막대기라고 하면 똥속에도 부처님이 있고 법계에 충만하신 것이 부처님이라고 유추하는 순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시심마입니다. 부처님이 마하 가섭에게 심인이 무엇일까란 화두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전법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

# 2020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사 업 명** : 2020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 **지원사항** :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 · 선무도 · 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 구 분 | 신청기간 | 결과발표 |
|---|---|---|
| 승려연수 인증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신청 | 공고일 ~ 11월 25일(월) | 12월 중 |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 홍선영 행정관)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층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3434번 참조

불기2563(2019)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 폐허 위에 피어난 새로운 시간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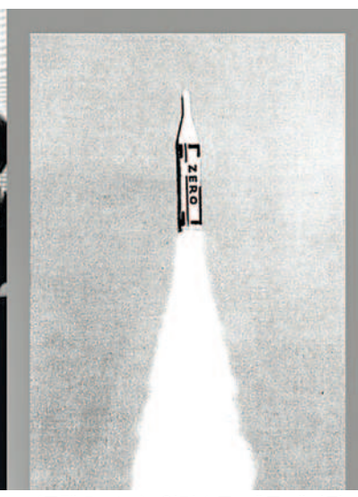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⑳ 제로 그룹



(좌로부터) 귄터 워커, 오토 피네, 쿠사마 야요이 & 하인츠 마크



〈로켓 Rocket〉, 일러스트, 제로 매거진 ZERO 3, 하인츠 마크, 1961년 3월


〈하얀 빛의 발전기 White Light Dynamo〉, 하인츠 마크, 목재에 알루미늄, 150x150x30 cm, 1964


작업하는 이브 클라인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무(無)'는 존재하는가? 이것은 한편으로 존재론적 질문이기도 하며, 수사적으로는 형용모순에 해당한다. 추상적 사유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기에 언어의 '실용적' 용도에서는 형용모순은 그것 자체가 난제다.

수학에서 영(零, Zero)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통상적으로 수(數)는 존재하는 사물의 수 혹은 양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 체계인 반면, 영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다. 영에 대한 서술 또한 기본적으로 형용모순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영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데는 '없는 것인데 있다'와 같은 본질적 모순 어법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고대로부터 유럽 그리스-로마 문명에서는 수학이 발달했으나, 영의 개념을 유럽보다 오래 전에 앞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은 유럽이 아닌 고대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과 같은 비유럽 문명권이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정신 문명은 사변과 논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동양의 고대 문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있어 형식 논리와 논증을 넘어선 그 어떤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시와 마찬가지로 조형 예술에 있어서도 창조는 어떤 모순 속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고 일깨워지는, 논리와 이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질을 지녔다. '무'는 존재의 영은 단순하고 절대적인 허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한 하나의 디나미스(dynamis)이다.

"제로는 침묵이다. 제로는 시작이다. 제로는 둥글다. 제로는 돈다. 제로는 달이다. 태양은 제로이다. 제로는 하얗다. 사막은 제로. 머리 위의 하늘은 제로. 밤" - 하인츠 마크, 오토 피네, 귄터 워커의 시 중에서 발췌, 1963.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뒤셀도르프의 두 젊은 예술가 하인츠 마크(Heinz Mack, 1931-), 오토 피네(Otto Piene, 1928-2014)는 시대가 결박한 기존의 타성과 완벽한 결별을 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예술을 꿈꿨다. 전쟁은 패배한 독일, 이탈리아를 파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조차 휘청거리게 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은 피폐한 유럽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예술을 일으켜 세웠지만, 유럽의 문화와 예술은 새로운 창조적 동기를 상실한 채 소진되고 고갈되어 갔다. 하인츠 마크와 오토 피네가 'Zero'라고 명명한 이 제로 그룹(Groupe Zero)의 예술 운동은 짧은 시간에 유럽 예술가들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머잖아 전 세계적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 미술은 잭슨 폴록으로 대표되는 추상표현주의가 지배적이었다면, 유럽의 미술계는 아르 앙포르멜이 전후의 새로운 미술사조를 이끌던 때였다. 그러나 제로 그룹은 추상표현주의나 앙포르멜로부터 거리를 두며 시작되었다. 제로 운동에 가담한 젊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볼 때, 당시 앙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는 작가의 개인적 정념이 과도한 이유로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했다. 지나친 주관적 정념의 표현을 제거하면서 시작된 제로의 미술 운동은 조형 예술과 시각 예술의 근본을 다시 반추하고, 무엇이 진정 본질적인 요소인가 하는 질문에 천착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빛과 공간, 그리고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이었다.

작품은 작가의 손끝을 떠난 순간 이후로 작품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한다. 모든 조형 예술의 결과물은 작가의 개인적 주관성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생명체이다. 그것은 빛 아래 반짝이거나, 한편으로는 어둠을 던져준다. 소재의 특성, 재질 그리고 그것이 공간 속에 발하는 존재감, 그 움직임, 바로 이것이 제로 그룹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예술이었다.

제로 그룹의 작품 세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소재, 색채, 빛, 움직임, 공간, 연속성 등이다. 제로 운동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인 하인츠 마크는 이러한 핵심적 요인들을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는 작품의 소재로서는 생소했던 재료인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짝이는 금속성의 하일라이트와 어두운 음영이 일으키는 움직임은 감상자로 하여금 미묘한 착시를 느끼게 하고, 관찰자의 위치와 주변 채광에 따라 변하는 빛의 산란은 미묘한 공간감과 시간적 흐름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색채가 연출하는 미적 심상을 중시했던 제로 그룹의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 색상을 하나의 작품에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 한 작품에서 다양한 색상의 혼재로 인해 야기되는 이미지는 음영의 효과가 자아내는 순수한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에 순수한 단일 색상을 사용하는 모노크롬 작업이 그들의 특징이다. 블루의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이브 끌랭(Yves Klein, 1928-1962) 또한 제로 그룹의 일원이었다.

제로 그룹은 명시적 강령이나 정규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회장도, 리더도 비서도 없었으며, 심지어 인증받은 회원도 없었다. 오토 피네의 말에 따르면, 제로 그룹에는 뜻을 같이 하는 예술가들의 인간적 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개인의 예술적 관계가 존재할 따름이었다. 새로운 시대, 새 예술을 추구하려던 이러

**주관의 제거가 '제로' 모토**
**조형 예술의 새 해석 지평**
**'불립 문자'의 경지와 닿아**

한 움직임을 일종의 그릇에 비유하자면, 제로 운동은 치밀하고 단단한 경질 도자기라기보다는 공기가 드나들고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다공성의 토기와 같았다.

당시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미술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미술관 시스템이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그들은 '저녁의 팝업 전시'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전시 방법을 고안했다. 전시 전문가들의 협력 아래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 형식이 아니라, 작가의 스튜디오, 바 등 임의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전시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나온 미학적 이념은 당시 유럽의 많은 작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내 예술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산되었다.

제로 그룹의 핵심적 일원 중 하나였던 귄터 워커(Günther Uecker, 1930-)는 "즉각적 체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참여할 때 얻어진다. 예술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예술 작품이 개인성에 제한되기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제로의 미술 운동에 참여한 많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제로 운동이 제시하는 예술적 창조의 동기와 미적 가치에 공감하여 기꺼이 일종의 범세계적인 콜라보, 즉 공동 작업과 협력 과정에 참여했다. 프랑스 누보 레알리즘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아르망, 이브 끌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아지무스 그룹의 피에르 만초니, 루치오 폰타나 등과 같은 작가들이 중심적 인물로 가담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쿠사마 야요이도 개별적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타이 그룹 또한 제로의 미술 운동에 깊은 공감을 가졌다.

하인츠 마크는 제로 그룹의 매거진에 우주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게재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는 제로 운동의 동기를 극명하게 이야기한다.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은 무수한 실험과 실패로 인한 모든 희생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 카운트 다운은 9로부터 시작해서 제로로 향한다. 제로의 시점에서 저 거대한 금속의 덩어리는 화염과 연무를 뿌리며 우주로 날아간다. 제로는 지난 시간이 남겨준 폐허와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어떤 미완의 시점이기도 하며 창조와 파괴가 공존하는 불확정의 지대이기도 하다.

오토 피네의 말에 따르면, 제로는 허무주의의 표현은 아니다. 제로 운동은 흔히 20세기 초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었던 다다이즘과 비교된다. 어떤 이들은 제로 운동을 일컬어 '신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로 운동은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폐허 위에 재건되는 예술을 지향한다. 그러나 다다이즘이 허무에 무게가 실린 반면, 제로 운동은 허무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피네는 제로를 '과거의 상태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지점,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공통의 근거 위에서 양립할 수 없는 부조화의 지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침묵과 순수한 가능성의 지대를 뜻하는 말'로 생각했다.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상당수가 도가의 노장사상, 선불교 등 동양 사상의 정신성을 그들의 작품 세계에 수용하여 예술 작업의 창조적 동기로 삼았다. 제로 운동의 참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추구한 미적 가치나 예술관은 불교의 가르침과 퍽 많이 닮아 있다. 개별 예술가들의 내적 정념이나 주관적인 자기 표현을 '무(無)'로 환원하는 것이 제로 그룹의 출발점이었다. 그들은 개아(個我)의 완전한 부정을 통해 생겨나는 빛과 시공간을 예술의 본질로 생각했다.

붓다는 "사리불이여, 존재는 공(空, Void, Nihil, Zero)과 다르지 않고 공은 존재와 다르지 않다. 존재가 공이요 공한 것이 바로 존재"라 일렀다. 단지 '색은 물질적 현상이며, 공은 실체가 없음'을 뜻함을 너머, 나아가 제로의 공함도 본질적 공함인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그것은 '없음'이나 '허무'가 아니다. 텅 비었으되 그 텅 빔 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꽉 찬 신묘의 세계다. 그것은 경전의 강술이나 언어 문자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다. 다만 이는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不立文字)'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으로 충만한 최상의 주문이요, 무지함과 몽매함을 밝혀주는 광명의 주문이며, 더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주문이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본연의 진리로다. 반야바라밀다의 이 같은 위대함을 비밀한 뜻으로 표현하는 진언(眞言)이 있으니 그 진언은 다음과 같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揭帝揭帝 波羅揭帝 波羅僧揭帝 菩提娑婆訶**

'반야심경(般若心經)' 중에서 〈미술학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아나빠나사띠숫타)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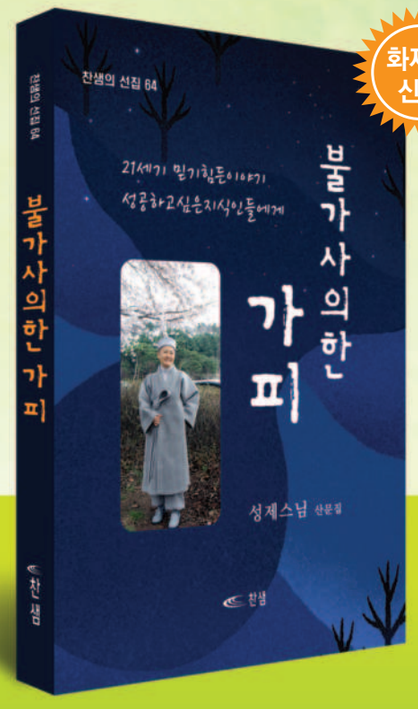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찬샘의 선집 64
21세기 믿기힘든이야기
성공하고싶은 지식인들에게
불가사의한 가피
화제의 신간


성제스님 산문집
256쪽 / 150×227mm / 값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기를 얻고 치료하는 영험담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어 길이 되고 방편 되어 청량제로 시원하게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준다. 21세기 믿기 힘든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이다.

#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 ⑳ 배움의 즐거움




그림 · 박구원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

늙어서 욕심을 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노탐(老貪)'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일을 하든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탐욕이 없었다면 진즉에 멸족되었지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 문명 시대를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앞서가겠다는 경쟁심. 이런 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성공담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아니 자신의 처지나 능력을 넘어서는 과욕은 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노탐은 꼭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교훈은 아닌 셈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나 중용(中庸) 같은 말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준칙이 아닐까?

아주 오래 전 서울에 살 때 어느 날 나는 내가 올해부터 나이가 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팔팔한 대학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영원히 그 나이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고작 눈을 몇 번 깜박였을 뿐인 듯한데, 공자(孔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의 세상에 접어든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늙은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 본들 충격이 가셔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 나는 쉰 살이 된 기념(?)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자는 엉뚱한 결심을 했다. 이것저것 고민해보다 악기를 배워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모니카나 트라이앵글을 배우겠다면 남들도 비웃을 테니 뭔가 그럴 듯한 것을 찾다가 바이올린에 눈이 가게 되었다. 내 팔 길이보다 짧으니 그깟 거 못할 게 뭐냐며 아주 만만하게 보았다.

그러나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을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깨달았다. 복잡한 기법을 익히기에 내 몸은 무디기만 했다. 왜 바이올린을 두고 '악마의 악기'라 부르는지 알았다. 바이올린을 손에 쥔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지금도 이따금 혼자 가벼운 곡들을 연주해보곤 하지만, 기대보다 소리가 신통찮을 때면 '노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자괴감을 어쩔 수 없다.

노탐이 주는 교훈을 금방 잊은 나는 남해에 와서 뒤늦게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빠졌다. 작년 겨울부터 우연찮은 계기로 농악을 배웠다. 남해에 있는 '화전매구보존회' 단원으로 들어간 게 동기였는데, 상모를 돌리고 소고를 치고 발동작과 진법(陣法)을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다. 그래도 조금씩 몸에 익혀지니 재미도 있고, 운동마저 되었다.

다시 저번 달부터는 매구를 익힌 김에 사물놀이에 도전하고 있다. 북을 맡았는데, 그럭저럭 잘 따라가는 편이라 내심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그래도 자꾸 바뀌는 가락이 혼란스러워 나오는 한숨을 감추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멈춰서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고현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강습'에도 나가고야 말았다. 커피를 좋아하는 게 이유라면 이유겠다.

매주 두 차례씩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강습에는 진주에서 '커피 바리스타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홍성빈 선생님(m. 010-6756-2226)이 지도를 맡고 계신다. 실력도 출중하지만, 대개 연세가 많은 수강생 주민들을 흥겹게 만드는 입담도 남달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도 봐야 하고 실습도 통과해야 한다. 카페 라테를 만들어 표면에 하트 무늬와 나뭇잎 무늬를 그려내야만 합격한다니, 솔직히 큰 부담이다. 딸아이들도 냉큼 따는 걸 보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 이상한 기하학 무늬만 둥둥 뜰 뿐 하트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기왕 저질렀으니 끝장은 봐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도 강습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누군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는 진리를 읊조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과욕에 빠져 노탐을 부리지는 않는지 실소(失笑)가 나올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강습 때 나보다 나이가 훌쩍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커피 머신을 조작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배움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자격증일망정 그 일에 집중하고 익히려는 자세야말로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첩경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외치는 요즘, 나는 죽어도 백 살 근처도 못 가리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없다면 나는 벌써 '산송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배움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은가!

**제대로 배우면 번뇌도 사라진다**

깨달음도 따져보면 배움의 결과물이다. 어느 때 느닷없이 갑자기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이를 돈오(頓悟)라 부른다. 말 그대로 '갑자기 깨달았다.'는 뜻이지만, 세상에 근원이 없는 물이 없듯이 깨달음에 '갑자기'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보기에 그럴 뿐이지, 백조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아래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수행과 정진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추구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을 것이다.

누구보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뭘 배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결정난다고 이르신 점은,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그 유명한 비유에서 갈파하셨다.

>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 **배움 깊어질때 번뇌 사라져**
> **유 · 불 모두 배움 강조해**

그러나 무작정 높은 목표만 세우고 과정을 밟지 않는 배움의 자세도 경계하셨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 정도(正道)는 없어도, 실천 없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엉뚱한 방법을 고르면 좌절만 안겨줄 뿐이다. 서울을 가자면서 남쪽 길로 내려가면 경기도 땅도 밟지 못할 건 당연한 이치다.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흐르면, 마침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진영 엮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196쪽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자 해서 연신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부처님은 끊임없는 수행정진, 물러섬 없는 노력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고 지적하신 듯하다.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바늘구멍을 겨냥해야 하듯이 목표를 정했으면 한눈팔지 말고 올곧게 나가야 뭐든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바늘구멍에 실을 꿴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양말을 꿰시던 일이 떠오른다. 눈이 어두워 실을 꿰지 못하시자 항상 내게 바늘과 실을 주시면서 그러셨다.

"백호야! 실 좀 꿰다우."

백호는 내 어릴 때 아명(兒名)이다. 내가 태어난 1962년은 호랑이 해였고, 그 해 호랑이는 백호(白虎)여서 그렇게 불렀단다. 돌아가신 지도 벌써 십 수 년이 다 되가는 할머니. 남해에 내려온 뒤 한 번도 묘소를 찾아뵙지 못했다. 장손(長孫)이라며 금지옥엽처럼 여기시던 할머니의 기대에 나는 반도 미치지 못하고 살지만, 항상 염주를 돌리시던 할머니는 지금 극락왕생하셔서 나를 위해 축원하실 것이다.

쉬지 않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 고승대덕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중생 하나하나 모두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輪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조차 번뇌의 실마리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배움이 깊어질 때 번뇌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온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니 배울 때가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교에서도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배움을 중시하기는 공자님도 뒤처지지 않는다. 유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일을 비유해 '문도(聞道)'라 한다. 공자가 '논어' 이인편(里仁篇)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可矣)"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 그만큼 도를 깨닫는 일이 절실함을 삶과 죽음의 비유로 설파했다.

공자께서 배움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면 그의 문답집인 '논어'를 펼치면 첫 장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배움에 대한 말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좋은 책은, 사람들이 자주 펼쳐보기는 하지만 끝까지 읽지는 못한다. 그러니 영리했던 옛날의 학자들이 핵심 문구는 책의 맨 앞에 두었을 것이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으냐?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와 함께 익히면 즐겁지 않으냐? 내 학문을 남이 몰라주어도 화를 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냐?"**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는 배움이란 홀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럿이 어울려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듯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독식(獨食)보다는 공유(共有)할 때 더 가치와 보람이 있는 법이다. 요즘은 어떤 기술이나 이론을 고안하면 다 저작권부터 챙겨 공유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노력과 고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이익추구로 나가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면 배운 사람의 참된 자세는 아닐 듯하다.

공자는 속수(束脩, 포 열 조각)의 예만 갖추면 누구에게든 자신의 경험과 이치를 가르쳐주었다. 나만 아는 비법 따위는 없었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바로 공자였고, 그렇게 살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쳤건만, 과연 조선의 유학자(儒學者)들 이 배운 대로 실천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공자가 가장 싫어한 독점(獨占)의 논리에 골몰했던 것은 아닐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박혁(博奕, 노름)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공자는 꾸짖었다. 배우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배움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배우기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소설가〉

포항 삼보사 제2기
범음대학 개강 안내

귀의 삼보 하옵니다.
소승은 범음. 범패 국가문화 50호 박송암 스님, 장백응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한 납자로서, 수십 년 동안 산중에서 범음을 수행정진한 승려로서 한국불교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범음의 정통 전문에 충실한 강좌를 열약한 조건에서 제2회로 개설하오니 수행의 본문에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뜻있는 의식과 소리에 관심있고 상구보리 하고자 하는 사부대중께서는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 |
|---|---|
| 강좌내용 | 상주권공, 3일 영산재 |
| 개강일시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
| 강좌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

오시는 길 (버스)
버스편은 포항 오천에서 30분 간격으로 '오천시장 정류장'에서 800번 버스 탑승, '하정리 정류장'에서 하차. (10분 소요)

삼보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길 59번길 35 | Tel 054-292-3370 H.P 010-9954-6196

삼보사 범음대학 강주 동곡 종산 합장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중급과정 (6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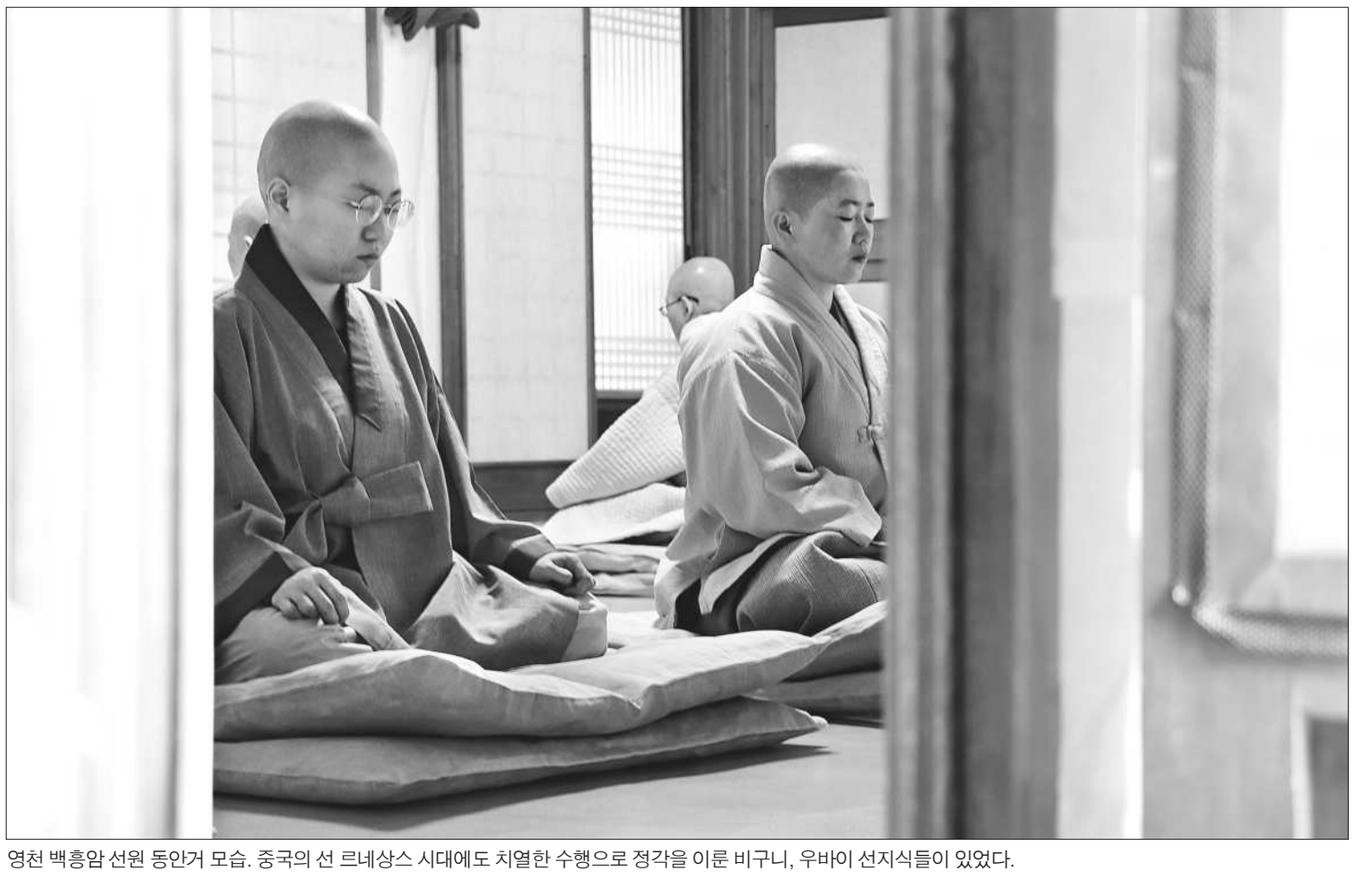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 유리천장 부수고 깨달음 이룬 여성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 ⑳ 비구니 선사 · 우바이



영천 백흥암 선원 동안거 모습. 중국의 선 르네상스 시대에도 치열한 수행으로 정각을 이룬 비구니, 우바이 선지식들이 있었다.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서양도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더더욱 낮은 편이다. 근자에 우리나라 공직자 남녀 비율을 조사했는데,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법조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겨우 두 자리 수를 넘었다.

그러면 불교계는 어떠한가? 부처님 당시에는 여성(출재가 모두)들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인정받았으나 부파불교로 접어들면서 비구니를 포함한 여성들의 하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승불교로 접어들어 일승(一乘) 차원에서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 나오면서 조금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선 르네상스 시대, 선지식 여성들이 있었겠는가? 대답은 "Yes"이다.

### 총지 비구니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온 지 9년 무렵, 인도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각각 얻은 바가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듣고, 달마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은 나의 진수(眞髓)를 얻었고, 한 사람은 나의 뼈를 얻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나의 살을 얻었다. 진수를 얻은 이는 (2조)혜가이고, 나의 피부를 얻은 이는 도부(道副)이며, 나의 뼈를 얻은 이는 도육(道育)이며, 나의 살을 얻은 이는 총지(總持)이다."

여기서 달마에게 '내 살을 얻은 자'라고 인가를 받은 총지는 비구니로서 양무제의 딸이다. 총지의 원 이름이 명련(明練)인데, 달마로부터 '총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 유철마 비구니

선종사에서 대표적인 비구니로 '쇠맷돌'이라 불리는 유철마(劉鐵磨)가 있다. 그녀의 이름에서부터 범상한 비구니가 아님을 의미하는데, 그녀의 선풍(禪風)이 매우 예리하고 험준해 사람들이 그녀를 유철마라 불렀다. 유철마는 위앙종의 위산 영우(潙山靈祐, 771~853)의 가르침을 받았다. 평소 유철마는 위산영우 선사 곁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유철마가 위산 선사를 찾아왔다. 위산이 먼저 인사했다.

"어이, 늙은 암소! 자네 잘 왔는가?!"

철마 비구니가 말했다. "내일 오대산에서 대법회가 있다는데, 화상께서도 가십니까?"

그러자 위산 선사는 네 활개를 펴고 벌렁 누워버렸다. 유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을 돌려 가버렸다.

참고로 위산은 호남성(湖南省), 오대산은 산서성(山西省)에 위치해 있어 두 산은 수천리 떨어져 있다. 유철마가 위산 아래에 살 때, 총림에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수행력이 높았다고 한다.

하루는 자호子湖 선사가 멀리서 찾아와 말했다. "소문난 맷돌 스님 아니신가요?" 유철마가 말했다. "외람됩니다." "맷돌은 오른쪽으로 도는가? 왼쪽으로 도는가?" "스님께서는 망상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자호 선사는 유철마를 갑자기 손으로 때렸다.

### 묘신 비구니 · 남대낭자

위앙종의 2조인 앙산 혜적의 제자 가운데 비구니 묘신(妙信)이 있다. 사찰에 외교관이나 다름없는 소임자가 갑자기 하산했다. 혜적이 고민한 뒤에 이전에 믿음직하게 보았던 묘신 비구니에게 중요 소임을 맡겼다. 앙산이 외출하고 돌아온 승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모든 대중이 찬성했다고 한다.

그녀가 중책을 맡은 지 얼마 안되어 사천성에서 17인의 승려들이 앙산에 도착했다. 마침 해가 기울여 비구 절에 가지 못하고, 묘신이 머물고 있는 암자에 들어왔다. 17인의 승려들이 법을 논하는데, 혜능의 풍번문답(風幡問答)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 결론이 나지 않고, 분분하자 묘신이 중얼거렸다.

"17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모여 있으면서 불법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했군.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달마의 살을 얻은 총지 스님부터**
**유철마 · 묘신 · 요연 등 선종사 기록**
**방거사의 딸, 영조도 재가 선지식**
**'일체중생실유불성' 보여준 롤모델**

한 승려가 듣고는 승려들에게 전했다. 스님들은 상의를 하여 그 비구니에게 법을 듣기로 하였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스님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스님들은 그녀의 위엄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묘신이 있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것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묘신은 혜능이 답한 '마음이 움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라는 관념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승려들은 그녀의 말에 감동한 바가 있어 앙산의 도량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묘신에 대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도겐(道元)의 〈정법안장(正法眼藏)〉 '예배득수(禮拜得髓)'에 전하는데, 도겐이 어떤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밝히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다. 아마도 도겐 선사는 일본의 비구니와 여성 신도들이 귀감을 삼도록 소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앙종에는 묘신 이외에도 정씨 성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위산 영우에게 참문하여 많은 문답을 통해 날카로운 선기禪機를 표했다고 한다. 후에 출가하여 대안(西院大安, 793~883, 위산과는 사형사제)의 법을 이었는데, '남대(南臺) 낭자'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선림유취〉에 전한다.

### 말산 요연 비구니

당대의 서주(瑞州) 말산요연(末山了然) 비구니는 고안 대우(高安大愚) 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말산이 임제 의현의 제자인 관계 지한(灌溪志閑, ?~859)과 선문답을 한 뒤에 관계 지한이 요연 비구니를 스승으로 예배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관계 스님이 행각할 때, 말산 요연을 찾아가 말했다. "대답하면 머물 것이요, 대답하지 못하면 선상(禪床)을 뒤집어 버리겠다."

요연이 법상에 오르니 관계 스님이 참문하였다. 먼저 요연이 물었다. "오늘 어디서 떠나 왔습니까?"

"길 어귀요."

"왜 일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절을 하고는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말산인가?"

"정수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말산의 주인인가?"

"남자의 모습도 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관계가 할을 하고는 말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신(神)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거늘 뭣 때문에 변해야 합니까?"

이 말에 관계 스님이 굴복하고, 그 곳에서 3년 동안 원두園頭 소임을 살았다고 한다.

### 실제 비구니

당나라 때에 '일지선(一指禪)'으로 유명한 구지(俱胝) 선사가 있다. 구지 선사는 법을 묻는 누구에게나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고 하여 그의 선을 일지선이라고 한다. 구지 선사가 젊은 시절, 아직 공부가 미치지 못한 채 암자에 홀로 살고 있었다. 이 무렵, 실제(實際) 비구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구지 선사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는 주장자를 선사 앞에 우뚝 세우며 말했다.

"화상이여! 한 마디 일러보십시오. 그러면 삿갓을 벗겠습니다."

비구니가 세 번이나 물었지만 구지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실제가 말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군."

이렇게 말한 뒤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구지가 말했다. "날도 저물었으니 하루 묵고 가십시오."

실제는 '말할 수 없다면, 떠나겠다'며 홀연히 떠나버렸다. 이후 구지가 탄식을 하고 지낸지 열흘 무렵쯤, 천룡(天龍) 화상이 처소에 왔다. 구지가 천룡에게 자신의 근황을 말하자, 천룡이 구지에게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그제서야 천룡의 손가락 하나에 깨달음을 얻었다.(법맥을 보면, 마조-대매법상-천룡-구지)

구지가 발심하고 정각을 이루는데, 실제 비구니는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실제 비구니는 선종사에서 조사선의 개조(開祖)인 마조(馬祖, 709~788)의 제자이다.

### 방거사의 딸, 영조

마조가 강서성(江西省) 건주(贛州) 공공산(龔共山) 보화사(寶華寺)에서 법을 펼 적에 남전 · 백장 · 염관 등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다. 방거사와 딸 영조도 마조가 보화사에 머물 때 귀의했다. 보화사 도량에 제자들의 이름을 딴 '등은봉송(鄧隱峯松)', '영조여련(靈照女蓮)' 등 유적이 전한다. 방거사 가족은 대나무로 생업을 이어가며 청빈하게 살았다. 특히 딸인 영조는 아버지의 경지를 능가했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이다.

방거사가 입적에 들려는 즈음, 딸 영조에게 말했다. "인생이란 꿈같고 허깨비 같은 것이다. 너는 네 인연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뒤 방거사는 영조에게 말했다. "해 그늘을 보아서 정오가 되거든 말해 주어라."

한참 후에 영조가 말했다. "일식이에요. 아버지, 어서 나와 보세요."

방거사가 밖으로 나가니, 일식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오니, 딸 영조가 평상에 올라가 죽어 있었다. 방거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 딸이 솜씨가 빠르구나!"

방거사는 딸의 장례를 위해 죽음을 일주일 연기했다가 일주일 뒤에 입적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특수 염불소리 구경법!

염불소리구경 신청을 하면 귀 사찰지역에 몇개가 모일때 방문!

염불소리 체험법!

나이들어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이 마이크와 2m이상 멀리 떨어져서 작은 소리에도 선명나게 내 귀에 내 염불이 잘 들리는 체험 후 시설 및 마이크만 구입 상담

원스톱 시스템이란?!

프로에게 맡겨 한 번에 최고의 시설만이 하자보수가 없어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

특장점!

(1) 영남권 20년 1천여 시설에도 단 한번도 A/S가 없었음
(2) 초간편 간단 시설로 앰프다루기 1초
(3) 중견사찰 기존 음향시설비의 1/3정도지만 염불소리는 비교시 놀라운 차이

▣ 추호라도 과장시는 본사 망신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추가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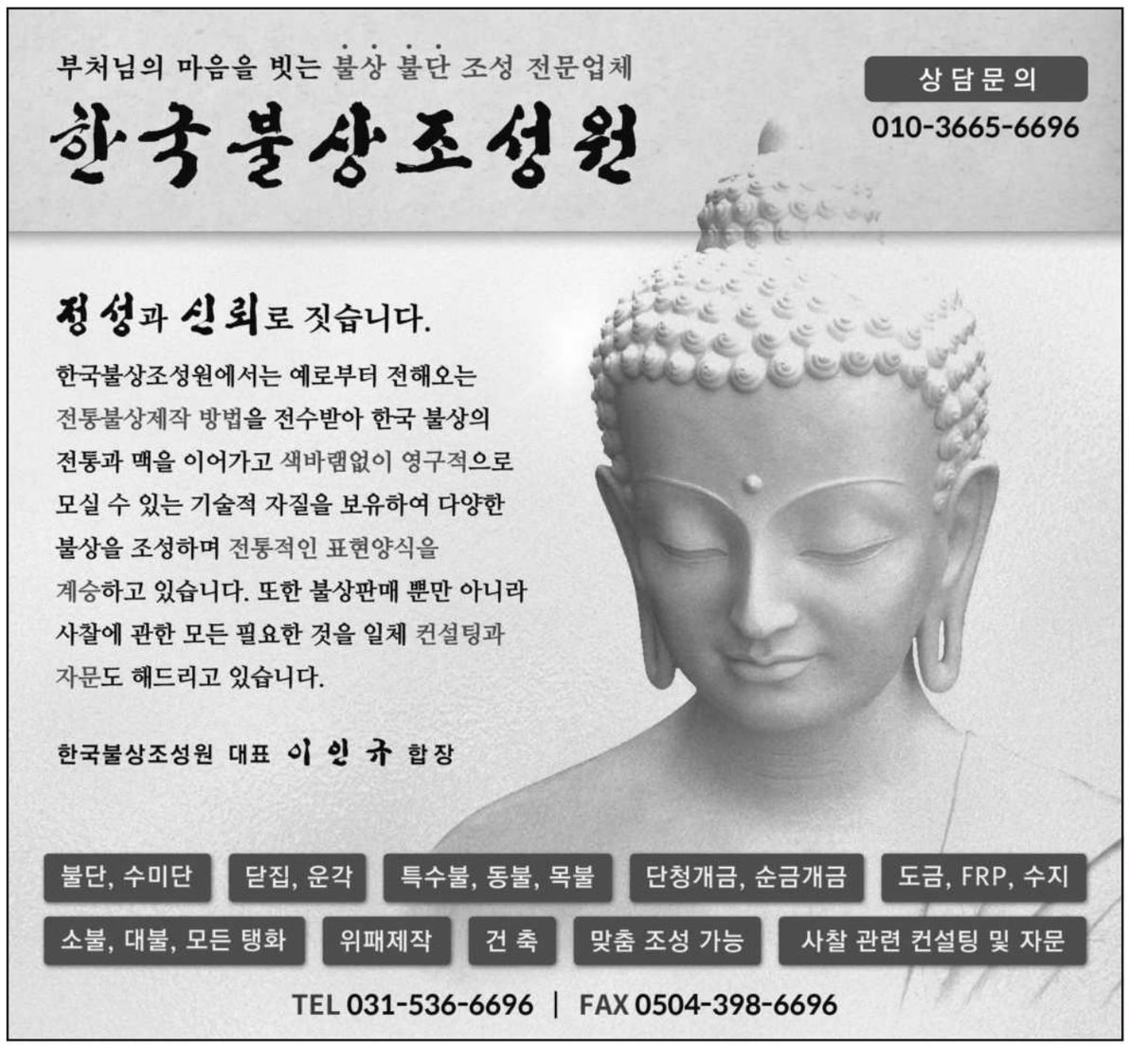
염불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하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 불변의 존재는 없다



新 불교사자성어

㊴ 제행무상(諸行無常)

가을이다. 마른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구르기 시작하면 왠지 쓸쓸해지고 허무해진다. '인생무상', '가을 앨레르기' 가 있는 사람들은 낙엽 소리를 들으면 심장에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든다. 신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병은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허무(虛無) 병', '가을 병' 이다.

'제행무상' 은 불교의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세 가지 진리인 삼법인의 하나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시각각으로 변천해 가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멸(死滅), 소멸한다는 뜻이다.

제행무상은 '존재의 법칙' 또는 '불교적 세계관' 이라고 할 수 있다. 형성된 것, 태어난 것은 시차(時差)의 간격만 있을 뿐 언젠가는 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변의 존재는 없다' 는 것이 제행무상의 의미이다. 즉 일체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것으로 한 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한다.

후기 대승경전의 하나인 〈대반열반경〉에는 '설산동자(붓다) 반게살신(雪山童子 半偈殺身)' 대목이 있다. 게송 즉 시구의 반을 듣고서 감동하여 나찰이라는 흡혈귀에게 자신의 육체를 보시했다(半偈殺身)고 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반게살신장에 나오는 제행무상의 고사(古事) 스토리이다.

고타마 붓다가 히말라야에서 명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공중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칙이다."

고타마 싯다르다(부처님)는 크게 감동했다. '진리의 언어' 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없고 오직 흡혈귀 '나찰' 만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찰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제행무상 시생멸법' 이라는 시구를 그대가 읊었습니까?"

"그렇소.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소?"

"그런데 그것은 반(半) 구절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절을 마저 들려주시오."

나찰은 말했다.

"들려주고 싶지만 지금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소. 만일 그대의 뜨거운 피를 준다면 나머지 시구를 들려줄 수 있소."

고타마 싯다르타는 나머지 시구를 마저 듣고 싶었다. 그것이 결어(結語, 핵심)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구절을 듣는다면 육체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말했는데, 직통하는 의미이고 가치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싯다르타는 그 마지막 구절과 자신의 육체를 바꾸기로 했다.

"약속할 터이니 꼭 나머지 게송(시구)을 들려주시오."

그러나 싯다르타는 자기 몸을 보시하고 나면 그 마지막 시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보시하기 전에 먼저 들려 달라고 간청했다.

이윽고 감동적인 나찰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생멸이 끝나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 그것이 최고의 낙(樂)."

나찰은 말했다.

"자 나머지 시구를 들려주었으니 어서 빨리 그대의 뜨거운 피를 주시오."

고타마 싯다르타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다. 그런데 나찰은 싯다르타의 몸이 땅이 닿기 전에 인드라(제석천)로 변해서 싯다르타의 몸을 받아서 땅에 내려놓았다.

경전에는 이때 여러 천신들이 모여 싯다르타의 발에 절을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구도의 정신과 서원을 찬탄하였다고 한다.

이상이 대승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진리의 한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주었다는 고타마 붓다의 '구도 이야기' 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 보수가 삼성 밀어낸 이유는?



격절록 강설

㊴ 제15칙 보수개당(保壽開堂)

[古則과 着語]

擧, 保壽開堂 三聖推出一僧 (萬人眾前 不得不恁麼) 壽便打 (據令而行) 聖云 "恁麼為人 非但瞎却這僧眼 亦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 (臨濟猶在) 壽便歸方丈 (兩箇弄泥團漢)

보수(保壽)가 개당설법(開堂, 開堂說法)을 하는데 삼성(三聖, 삼성혜연)이 한 스님을 밀어내자, [만인의 대중 앞이라 부득불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수가 바로 쳤다. [법령에 의거해 행했다.]

삼성이 말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다만 이 스님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사람들 모두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임제(臨濟, 임제의현)가 아직도 있다.]

보수가 바로 방장실로 돌아갔다. [진흙덩이나 가지고 노는 두 사람이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保壽三聖 雖發明臨濟正法眼藏 (那裏得這箇消息來) 要且只解無佛處稱尊 (討什麼椀) 當時這僧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掀倒禪牀 (便打) 直饒保壽全大機用 也較三千里" (你已在萬里崖州)

설두가 염(拈)했다.

"보수와 삼성이 비록 임제의 정법안장을 드러내 밝혔을지라도, [어디서 이런 소식을 얻었는가?] 결국은 단지 무불처(無佛處)만 알고, (이를) 최고로 여긴 것이다.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 무슨 밥그릇을 찾는 거야?]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 대장부)이었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 [(선상을) 쳤다.] (그랬더라면) 설사 보수의 대기대용일지라도, 삼천리나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대(설두스님)는 이미 만 리 애주(崖州)에 있다.]

[評唱 1]

第二代保壽參前保壽 令參父母未生已前 如何是你本來面目. 如此數年 不能省悟. 一日別保壽行脚去 壽云 "汝且住 當有證入" 令作街坊. 忽於鬧市中見二人相爭 一人勸云 "你輩得如此無面目" 壽於言下大悟. 後前保壽遷化 祝三聖云 "且令作山主 住十年始得開堂" 後三聖作請主令開堂. 開堂日 三聖推出一僧 保壽便打. 且道 他古人意在什麼處.

제2대 보수(保壽)가 전 보수(前 保壽, 제1대 보수)를 참례하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화(父母未生前 本來面目話)를 참구토록 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참구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보수와 헤어져 행각을 하려는데, 보수(前 保壽)가 이르기를 "네가 잠시 그만두면, 마땅히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하고는, 화주승(街坊)이 될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화주를 하고 있는데) 홀연히 시끌벅적한 저자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한 사람이 타이르며 말하기를 "자네들이 이와 같이 다투니,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라고 했는데, 보수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

뒤에 전 보수가 천화하자, 삼성이 축원하며 말하기를 "만약 산주(山主, 주지)가 되고자 하면, 10년 뒤에 개당(開堂, 주지가 되어 법문을 함) 하시오!" 라고 했다. 뒤에 삼성이 (제2대 보수를) 주지로 청하면서 개당하도록 했는데, 개당하는 날 삼성이 한 스님을 밀어내자 보수가 바로 쳤다. 자, 말해보라! 고인(古人)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2대 보수(第二代保壽) : 전등록 제12권에 진주 보수 소(鎭州 寶壽 沼, 제 1대 보수) 화상의 법손 2인으로 '여주 서원 사명 선사'와 '제2세 보수 화상' 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삼성혜연(三聖慧然, 생몰 연대 미상): 임제의현의 법사. 의현의 법을 얻은 후 여러 총림에 역참한 뒤, 진주 삼성원에 머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㊴ 이해의 길 19

## 불교는 어려운 종교인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도 좋고 모두 마음에 드는데,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교 공부가 어렵긴 하다. 그런데 붓다 당시에도 그랬을까? 붓다는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였다. 당시 불교가 인도 전역에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불교가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일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불교 교단은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20여 개의 부파로 분열된다. 400여 년 동안 지속된 분열은 불교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파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붓다의 말씀인 경(經)에 대한 주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에 대한 해설서를 논(論)이라 하는데, 부파마다 독립적인 논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이 완성되고 불교의 교리가 체계화된 반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로 변하게 된다. 특히 출가자 중에서도 지식을 갖춘 엘리트 비구들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붓다의 말씀인 경을 연구하고 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여 개의 부파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적 소양을 갖춘 비구가 승원에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자기들 부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서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런 전문적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승원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 불리는 아소카왕의 사찰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파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실재론(實在論)을 주장한다. 붓다에 의하면 모든 것은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自性)을 갖춘 독립적 실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있다(有)고 보았다. 그들은 각각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소를 법(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아공법유(我空法有)' 라고 한다. 예컨대 나무라는 존재(我)는 연기하기 때문에 공(空)하지만 나무를 나무이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法)은 실재한다(有)는 뜻이다. 그들은 이러한 법을 연구하여 75개를 찾아냈는데, 이를 '5위(位) 75법(法)' 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5온(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5온도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강력하게 부정된다. 〈반야심경〉에서 '5온이 모두 공하다(五蘊皆空)' 고 한 것도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며 실재론을 견지하는 부파불교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부파불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불교가 어렵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문제에 집중하였다. 한 종교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학문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맹률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학문적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지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했다. 이를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지극히 어렵고 관념적인 불교로 변했다. 대중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린 부파불교에 등을 돌리고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 외침이 다름 아닌 대승불교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 는 지 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대상 : 누구나 관심 있는분
• 종교지도자 및 상담사로 창업하실분
• 가족문제 및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분
•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 분

문의 : 010-8634-7851(정행스님)

장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시간 : 지도자 과정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융합명상 아카데미 천안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17시
종교지도자 우대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청수동) 보광사
접수 010-3115-3070 간사 양지우

융합명상 아카데미 동대구
매월 둘째 금요일 시간 미정
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251(서호동) (지하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 커피 옆건물 2층)
접수 010-9568-7447

융합명상 아카데미 부산수영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17시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19번길 14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남천역 2번, 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접수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 생명나눔으로 찾은 희망

### 부산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0월 26일 부산 초읍어린이 대공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 일대에서 '제11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본부장 원범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휠체어 전달식, 하림 스님(미타선원 행복선명상센터장)의 명상걷기 설명 및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휠체어는 보훈병원 및 나눔과 행복병원 등에 총 5대를 전달했으며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걷기 대회 후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원범 스님은 "날씨가 정말 맑고 따뜻하다"며 "이렇게 화창한 날 즐겁게 명상을 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사회도 맑고 깨끗해지기를 염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행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본부 이사 스님들과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과 8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생명을 위한 희망 나눔에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관룡사, 국태민안 기도정진

### 10월 초하루, 산신재 · 용왕재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는 10월 28일 경내 칠성각과 산영각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산신재와 용왕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관룡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국태민안을 위한 기도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주지 정안 스님은 "화왕산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면서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창건주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기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화합하며 편안하도록 기원하기 위해 용왕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라8대 사찰인 관룡사는 여행객들의 최적지로 부곡온천과 더불어 역사적 볼거리로 대웅전(보물21호)과 약사전(보물146호)을 비롯해 석조여래좌상(보물519호)과 약사전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11호),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295호) 등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농촌 불심 드높이는 문화센터 발전 기원"

Interview

### 고창교육문화센터 관장 법만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식 개관 앞둔 고창불교회관**
**준공 검사 마치고 내부공사 중**
**청소년 · 성인 위한 문화도량**

"선운사가 호남불교 중흥의 시작점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 숨 쉬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고창종합사회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다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육아와 노인복지는 안정화됐지만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고창불교회관은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과 문화를 통한 포교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올해 10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내부 시설공사가 한창인 고창교육문화센터(고창불교회관) 초대관장 법만 스님은 센터의 건립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고창읍내 월곡 뉴타운에 자리 잡은 고창불교회관은 지난 2011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다. 또한 11월 6일 고창 시니어클럽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창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공사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내소사, 도솔암, 내장사 등 교구 본말사스님들의 원력이 없었다면 회관 건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불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결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창불교회관에는 명상실, 시니어클럽, 로컬푸드판매점, 북카페, 육아공동나눔터, 컨벤션홀, 청소년 체험실, 휴게실, 구내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불교의 포교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포교보다 교육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인 고창의 특수성을 감안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이나 사찰음식점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운사 대중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포교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불교회관은 명상강좌와 청소년체험강좌, 청소년상담, 요가, 교리강좌, 선 수행, 다도강좌를 개설하고 목공, 서각과 같은 취미활동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도서관, 공부방, 공동육아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관련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도 설립할 방침이다.

"처음에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과 성인불자를 기본으로 전 세대에 걸쳐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문화, 복지가 골격을 갖추게 되면 평생 불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불교종합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창불교회관이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부각된다면 지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불교계의 대사회 역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불교예술 정수 보인 광주영산재

###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무형문화재 시연행사 참가

불교예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영산재 시연회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26일 광주 빛고을전통문화관에서 제15차 정기 시연회를 갖고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빛고을전통문화관에서 진행한 광주시무형문화재 시연행사인 '무등울림'의 마지막 행사로, 23호로 지정된 불교영산의식 재현행사였다.

이날 시연회는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영산재보존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영산재는 현세의 모든 중생과 영혼의 세계까지 고통에서 해탈과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거행되는 거룩한 불교의 전통"이라며 "향후 전수관을 건립해 젊은 후학들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유산이 길이 보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시연행사에서 바라무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시연은 영산재 도량에 불보살과 옹호성중을 청해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수자인 혜령 스님(율곡사, 범음분야 지정자), 호산 스님(담양 무각사, 바라분야 지정자), 월인 스님(법륜사, 작법분야 지정자) 등이 직접 의식에 참여해 바라, 범음, 작법을 시연했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는 지난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1991년 봉서사와 1992년 일응 스님에게 7년간 사사해 지난 2014년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개산 기념한 경로잔치마당

### 울산 벽선암, 78주년 개산대재 행사서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은 10월 29일 경내에서 개산 78주년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 및 예불로 시작해 1부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2부 법요식은 △타종 △개회식 △육법공양 △보살무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발원문 △인사말 △축사 △청법가 △회주 효산 스님 법어 △사홍서원 △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기리다

### 경산 반룡사, 제12회 원효성사 등 다례재




경산 반룡사(주지 혜해)는 10월 26일 제12회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다례재를 봉행했다. 반룡사 주지 혜해 스님은 "천년고찰 반룡사는 석조유물이 도지정문화재(제675호)로 지정된 사찰로 2008년부터 거행해온 원효성사, 설총선생, 요석공주에 대한 육법공양 다례재, 왕재산행. 어르신잔치 등은 지역의 축제한마당으로 발전했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1회 군위 용지골 문화축제

### 세계불교지장선원종, 10월 26일 문화행사 열어



사단법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총본산 지장선원(주지 혜봉)은 10월 26일 군위군 화북리 모닥불 행복캠핑장에서 제1회 화산 용지골 모닥불 문화 · 예술 · 행복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장선원 주지 혜봉 스님과 서보현 수필가, 오주훈 경북과학대 교수 등 문화예술가 및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대구지사 | 손문철 | T 053-768-8008 | H 010-2813-8008 |
| 부산지사 | 이도경 | T 051-405-9402 | H 010-5640-8883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T 062-512-5003 | H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T 063-910-8977 | H 010-8642-7733 |
| 경남지사 | 성낙두 | T 051-512-1761 | H 010-3860-7008 |
| 영주지국 | 박영애 | T 054-634-3429 | H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267호 | A13 | 전면광고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에서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평생돈벼락 운(運재테크)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수강생 모집
사주 추명설 알기쉽게 단시일 지도함
• 길흉직업 • 궁합선택
• 영가천도 • 작명상담
010-9323-5693

##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 • •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 신통력
손에 쥐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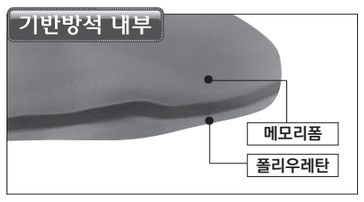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 개강 : 11.5(화), 14:00 • 대상 :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백암역리원 02)597-110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 | |
|---|---|
| 가로 | 45cm |
| 세로 | 32cm |
| 높이(뒷면) | 8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 010-5282-8431

##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267호 | A14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곧 나요, 내가 곧 남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 사찰·연수원(터) 안내

- 위치 : 경부선 영동I.C 15분거리
- 경관수려. 완전 독립된 산속 전답.
- 총평수 : 약 5천평
- 가액 : 평당 15만원

010-9504-2388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 광진불사

◎ 위치 : 경기도 시내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5천

◎ 위치 : 서울신도시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4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쑥뜸방 20평, 고정수입 있음
- 철학하시는 분 환영

010-9422-1233

##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 최고요지. 도보 5분~10분거리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개.창고2.화장실2. 요사채30평.방2개.다용도실1.샤워실1.창고1
- 가액 : 3억3천

010-6565-2042

##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35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3층건물 2층 약 45평
- 삼존불.신중.산신.영가단.소불 108불.방2칸.공양간.실내화장실2칸.냉난방시설완비
- 시장 가깝고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 월세35만원
- 시설비1천8백만원.도량이 참하고 완벽

010-3152-2732

##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
- 건축물면적 : 135.49㎡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최고 바다전망
- 부산시내(문화재 사찰)
- 토지 : 임야 대지4,100평
- 건물 : 법당38평, 산신각6평
- 지대방10평
- 요사체 공양간 95평
- 가액23억

010-5346-4138

## 포교원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차로10분,안산20분 ● 총110평정도 4층 전체 및 옥상 전체 사용 ● 삼존불(상단),신중단(홍탱화),산신탱화,약사전(약사관음,후불탱화), 영단(목단상조성) 법당 약 70평 이상 ● 사찰소임으로 급히 결정되어 부득이 ● 몸만오셔서 즉시법회 가능 ● 큰방3(에어컨),사무실1.다용도실1.공양실.법당.앰프시설.에어컨2대 ● 보증금:1000만원.월150만원(보증금에따라 월임대료 조절가능) ● 총시설비 6500만원. 현포교원개원13년이상. ● 월곶.배곧신도시아파트대단지,서울대학교,이마트,대부도,오이도 근교

010-8599-9468

## 사찰안내

- 위치 : 용인터미널 10분거리.버스, 빌라.주택많음.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 456m2. 138평. 목조 5칸
- 법당3칸.방2개.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지붕 칼라강판 ● 창건연대 4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2천

010-3565-0087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신이문역 3분거리 삼존불,신중,산신,지장,칠성
- 법당 겸 거실,작은방1,주방,화장실, 창고2개,고정주차1대,3층건물 중 1층
- 보증금 : 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즉시법회가능)
- 스님,무속인 혼자운영하기 참 좋은곳

010-5129-5275

## 사찰안내

- 위치:경기 파주 지역 •대지:90평 •1층. 건평70평 중 50평. 황토방 편백 •법당 2층 30평. 바로 법회 가능 •서울역~파주지하철.교통편리.주차편리.최상시설.시야광활한 동향집(용도:사찰. 포교원. 교육. 명상센터. 쉼터등)
- 가액:4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2122-0075

##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3323-7000

조계종 스님입니다.
경기 이남 천안, 아산 사찰 구합니다.
법인 사찰 창건주 승계도 가능합니다.

010-4952-9672

## 사찰안내

- 위치 : 구미근교(북삼읍)
- 대지 : 약 178평
- 건물 : 1층 약 100평 실내골프장 (월세 120만원 나옴) 2층 : 법당 및 요사채(약100평)
- 가액 : 6억 5천 (대출3억2천 포함, 조정가능)

010-8008-6781

## 사찰터 안내

- 명당자리 산끝자락
- 위치: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197번지
- 대지 195평, 임관리지역 274평, 총 469평

010-7321-0404
010-4870-2054

##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7천

011-9143-0098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3층건물중 1층 대지32평 건평28평
- 건물: 법당 삼존불, 방3, 화장실(실내/외)
- 가액: 보500 월40, 시설1300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2786-2474

##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순창군 지역 •평수: 총703평(종교부지225평,대지72평)(전,답87평 현재 대지로사용중)(전,답319평 농지) •대웅전: 1동, 요사2동,(목조기와 콘크리트), 산신각,칠성각등 전각4동, 방 총7개, 황토방2개 포함,해우소3개, 거실 및 창고 넉넉함 •가액:2억3천5백(임대,상담후 가능) •즉시 법회가능

010-4489-3347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 서울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남부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서향 코너
- 보 500 / 월 50 권리금, 부가세 없음
- 특이사항(건물주가 거주하면서 협조함)

010-5381-1419

##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 전망좋은 암자

(청정 바닷가)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82-5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10만원 또는 보증금 1천만원 / 월세20만원
- 매매도 가능함

010-8643-5235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북구 재래시장요지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60평(無세대 상가) 2층~옥상 단독사용
- 삼존불.신중.칠성.산신.용왕.소불200불.좌대법고
- 친견실.객실.명상수련.편백황토 힐링방
- 냉온 난방.실내외 보안시설 및 대형 주차시설
- 열차.지하철.버스(도보5분)공항(차량10분)거리
- 전세 : 2천/30만, 시설 : 3천8백 현~법회중
- 건강문제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010-4535-2568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에서 20분 거리
- 사찰 총 500평. 종교부지 350평. 임 150평. 법당 20평(원통 보전). 요사채 3동
-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 넓음
- 도량 내 많은 나무와 잔디로 조경
- 스님 타계로 급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430-4672

## 입종안내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락사, 진정한 '안락' 아니다"

## 日 조동종, 안락사 문제에 불교좌담회 열어

박영빈 객원기자

**조동종 연구센터 연구원 스님들**
**안락사 · 존엄사 불교관점서 살펴**
**몸과 마음 편하려 선택한 안락사**
**불교서 말하는 안락과 거리 멀어**

최근 안락사 혹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과연 불교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는 가능한 일인지, 일본에서 특별한 좌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4일 일본 언론사 'JB프레스'는 안락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조동종 종합연구센터의 연구원 후루야마 켄이치 스님은 먼저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란 그리스어로 '선한 죽음'을 뜻하는 Euthanasia를 번역한 말이다. '안락'이란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이 즐거운 것을 뜻하고, 또 그 말은 불경에서 나온다. 행복을 뜻하는 범어 sukha가 그 어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안락사가 과연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후루야마 스님은 "불교의 안락은 단지 심신의 즐거움이 아닌,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오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고통이 없음을 안락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불교의 안락이라는 입장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맞이하는 죽음을 안락사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후루야마 스님은 이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안락사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어떤 해야 할 것이 있는지는 생각지 않고 단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죽음'만을 바라고 안락사를 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가운데, 존엄하게 죽고자 존엄사의 형태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동 연구소의 우노 젠치 스님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이나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가족이나 의사에게 존엄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동의했다.

우노 스님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선택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있다"며 최근 이 같은 풍조가 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활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평등하게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안락사라는 죽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삶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락사에 대한 좌담회에서 의견을 밝힌 조동종 종합연구센터의 후루야마 스님(사진 왼쪽)과 우노 스님. 사진출처=JB프레스

우노 스님은 "선가에는 '100세를 살아도 하루 좌선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삶속에서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시간'을 찾은 것이다. 죽음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안락사를 선택하는 일이 자주 보인다'는 질문에 이르자 두 스님은 "주변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해도 그 죽음을 마치 가치 높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루야마 스님은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생명 안에는 가족, 친척, 친구, 공동체가 모두 들어 있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단지 '편안한 죽음'만을 생각해 가볍게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두 스님은 "안락이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 아닌,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죽어서 좋다면, 반대로 살아서 좋은 것도 있는 것"이라며 단지 삶과 죽음이라는 양 단적인 선택만을 바라보지 말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잃어버린 9C '쌍둥이 사원' 터 찾다

## 日 교토서 도지 사원 '자매격' 사이지 사원 터 발견

일본 교토시(市)의 한 사찰 터에서 9세기 법당과 5층 석탑 석조 기반이 발견됐다.

지역 당국은 10월 28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구조물은 796년에 현존하는 도지(To-ji) 사원과 함께 세워진 사이지(Sai-ji) 사원의 일부로 추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밝혔다. 도지 사원은 헤이안 시대 귀족에 의해 건립된 후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 코보 대사가 총본산 건물로 쓰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부지는 도지 사원의 '자매' 격인 사이지 사원의 실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며 "사이지 사원은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지'는 '동쪽'을, '사이지'는 '서쪽'을 의미해 두 사찰은 일본사에서 '자매 사찰'로 여겨져 왔다.

시에 따르면 사이지 사원의 부지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지 사원은 990년 큰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고,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중 1233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5층 석탑마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진다.

고고학자들은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추정 건축 날짜 등을 기준으로 "이번에 발견된 부지에 5층 석탑의 기초석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이지 사원과 도지 사원이 헤이안쿄(현재의 교토 시의 몇몇 예전 이름 중 하나) 성문을 기준으로 각각 서쪽과 동쪽에 대칭적으로 위치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현존하는 도지 사원 모습 등을 토대로 사이지 사원 내 5층 석탑의 위치를 추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발굴 관계자는 "사이지 사원의 탑은 도지 사원의 5층 탑 바로 맞은편에 대칭 꼴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교토 시(市)에서 9세기에 건축된 사이지 사원의 법당과 5층 석탑 석조 기반이 발견됐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 日 온라인 스님 파견, 끝내 사업 중단

**종교 상품화 지적 잇달아**
**불교계 앞다퉈 환영입장**
**소비자는 투명성에 만족**
**수요 해소할 대안 찾아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승려를 파견하던 일본의 '온라인 스님 파견'이 끝내 중단됐다. 10월 25일, 일본의 '산케이 비즈'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한 가운데, 향후 불교계의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월 24일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 재팬'을 통해 스님을 파견하는 의뢰를 받아온 장의 전문회사 '요리소우'는 온라인 스님 파견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님 파견은 지난 2013년 요리소우에서 시작해 2015년엔 아마존 재팬 등 대형 온라인 쇼핑


논란이 되어 왔던 '온라인 스님파견' 서비스 상품. 사진출처=산케이 비즈

포털을 이용해 제공해 왔다.

출가자와 불교의례를 마치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불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이번 철회는 불교를 '상품'으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전 일본불교회 등 불교계 각지의 거듭된 항의와 상호 간의 충분한 의사전달의 끝에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다.

요리소우 측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을 이용한 결과, 본래의 의지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교의 의의에 대한 오해를 광범위하게 낳는 결과가 발생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본 사업을 종료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본불교회의 사무총장 도마츠 요시하루 스님은 "올해 봄부터 사측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장의절차에서는 천도재도 중요하지만 남은 유가족 위로를 중점으로 해야 하는 만큼, 회사 측의 방침변경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불교의례를 상품화했다는 문제에 더해, 실제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에 속해 몇 차례 파견된 한 스님은 "파견승려로 등록할 당시 매우 허술한 체계에 놀랐다. 특정 종단의 승려증 사본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전화면접으로 등록이 끝났다"며 이용자로부터 항의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스님은 "천도재나 기제사가 끝난 후 스님에게 주는 보시금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른바 '정성껏 보시' 형태여서 신도들이 부담을 느꼈다"며 "반면 온라인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각 의례의 내용, 시간, 횟수 등에 따라 명확한 금액이 책정돼 투명해 인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보시금의 문제나 승려의 자격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승려 파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해당 사안에 불교계와 장의업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미얀마 성지순례하던 불자 15명 사망

## 축제 후 돌아오다 참변, 절벽 아래로 트럭 추락

미얀마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불자 25명이 트럭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다.

10월 3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불교 성지순례자들이 트럭 짐칸에 타고 미얀마 남부 샨주(州) 욘 타웅 마을 인근을 이동하던 중 3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절벽의 총 높이는 600m에 달하며, 이 사고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들은 북서 지역의 불교 축제에 참석한 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전해진다. 불교도가 주를 이루는 미얀마에서는 인근 지역 불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 마을 사람끼리 트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낡은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사고현장을 수습 중인 소방대원과 경찰들. 사진출처=이라와디닷컴

경찰 당국은 "트럭이 커브길을 지날 때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 등에 설명했다.

현장 감식 결과 15명은 이미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0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6세, 9세 등 어린 아이들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통찰명상

조셉 골드스타인

〈1〉 마음의 장애물

# 더러운 천 얼룩은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불교의 통찰명상인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 어떤 이는 매일 좌선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주말을 이용하거나 며칠이나 몇 개월의 수행 코스를 밟는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물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놓은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을 통해 한걸음 더 정진해보자.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들 대부분은(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에 일어나는 유익하지 못한 영향력에 맥없이 휩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 장애물과 바르게 관계 맺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해로운 정신 요소를 균형감 있게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해로운 정신 요소로 힘들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당신은 이미 순수함과 벗어남이라는 훌륭한 마음의 힘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신이 두려움과 분노, 강렬한 욕망 같은 마음의 폭풍우에 휩싸이는 동안에는 이 사실을 떠올리거나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선한 행동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지금 수행이라는 깨어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당신이 가진 마음의 순수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20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고승 딜고 켄체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몇인가?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운데 다르마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몇인가? 또 다르마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들 중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몇인가?" 이런 식으로 다르마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분명 기쁨과 확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 유익하지 못한 마음 요소가 수행하기 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한 마음 요소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다양한 정신적 장애물에 압도당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들뜸, 게으름, 분노, 의심, 탐욕, 자만, 질투 등 온통 괴로운 감정만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교의 전통적 비유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 묻은 천의 얼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깨끗한 천의 얼룩은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상 수행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마음속 장애물이 더 잘 드러나 보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 장애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료하게 본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당신의 의식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 생각을 대하는 방법

명상은 어떤 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차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서없는 생각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삶의 대부분 시간을 생각에 빠져 지냅니다. 하지만 명상은 생각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와는 다른 과정입니다. 명상은 생각이 아니라 침묵으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침묵하며 관찰할 때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명상의 목적에서 볼 때 특별히 '중요한' 생각이란 따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소중한 가족과 친구도, 언젠가 쓰겠다고 벼르는 위대한 소설도 명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상 중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상에서 생각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생각에 맞서 싸우거나 그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저 그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났음을 일찍 알아챌수록 생각의 텅 빈 성질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종종 아주 유혹적입니다.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아 몽상에 빠진 채로 있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에겐 즐거운 경험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우려는 지혜는 머릿속의 시끄러운 생각이 아니라 침묵하는 알아차림에서 직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명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생각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명상의 대상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관찰의 힘이 강해지면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찰하면 생각의 본래 성질을 알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자각하게 됩니다.

다르마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현상과의 동일시가 우리에게 미치는 강한 영향이 그것입니다. 동일시는 우리를 자신의 조건화된 내용에 가둡니다. 자신이 조건화된 내용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생각 · 사색과는 다른**
**침묵으로 관찰하는 과정이다**
**초대받지 않은 생각 찾아오면**
**차분히 관찰하면서 지켜보자**

생각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생각을 '나'로 강하게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휩쓸어 갑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먼 곳까지 데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열차에 올라타는지도 모른 채 올라탑니다. 물론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생각에 휩쓸려가고 나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생각에 농락당했음을 깨닫습니다. 이윽고 생각의 열차에서 내려오면 열차에 올랐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정신적 환경에 있게 됩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생각은 우리를 온갖 이상한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강하게 조건 짓다가도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사라지는 생각이라는 현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놀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잠깐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직접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당신이 영화관에 앉아 텅 빈 스크린을 쳐다본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무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당신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즉각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이제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 생각을 알아차렸습니까? 알아차리자 생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졌을 것입니다. 생각은 거기 빠져 있는 동안에는 실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아차리는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마술 놀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고 또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같은 생각에 계속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 상태 또는 생각이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의 텅 빈 속성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붓다는 우리가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창조되며 이끌린다고 말했습니다. 붓다의 말이 옳다면 생각의 과정을 신중히 살핌으로써 지금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지금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생각들에 우리가 얼마나 큰 '권력'을 부여하는지 알면 놀랄 정도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해. 꼭 기억해. 신중히 계획해. 반드시 그래야 해. 즉시 판단해." 초대받지 않은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은 종종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단순하게 관찰할 수 있는 명료하고 강력한 마음 공간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이 일어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 공간에 서면 어떤 생각이든 실체 없이 비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이 한때 지나가는 '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이끌며 세상을 쥐고 흔드는 생각이지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명료하고 강력한 마음 공간에서 생각은 마음의 일시적인 에너지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공간에서 생각은 물결 하나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사라지는 투명한 이슬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보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생각 속에 길을 잃고 헤매거나, 특정 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로 무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는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유익한 생각과 유익하지 않은 생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생각에 힘을 실을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힘을 실을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생각이 일정한 업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이끕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며, 행동에서 온갖 다양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힘을 실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는 생각을 분명하게 봄으로써 어떤 생각을 행동에 옮길지, 또 어떤 생각을 그냥 놓아둘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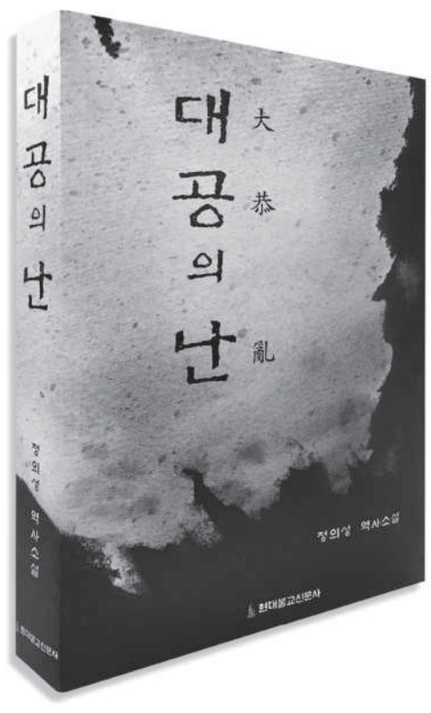
이 글은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마음친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대행 스님



# 나라는 존재를 세울게 없는것이 진리입니다

제주도에 와 본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에 두어 번은 올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루 이틀 익혀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먼저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스스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립해서 알아야 하고, 또 중용을 할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 하면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님들도 정말 예전과 같이 밥이나 해다 놓고 목탁이나 쳐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살림 중이 돼서는 아니 되며, 여러분도 기복불교는 물론이고 이 신(神) 저 신을 찾으며 온통 이름만 믿고 다니는 습들을 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단호히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역사에 고난이 많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들이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마음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바로 자동적으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고등 동물입니다.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하는 것도 과학이죠. 과학이라고 하기 이전에 역시 심성은 꼭 빼놓지 않아야 된다. 심성 빼놓고 뭣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모든 게.

그러면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과, 업보, 유전, 조상의 문제 등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남을 망하게 했으면 네가 바로 그 업보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인과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고라고 하니까 고인 것이지, 고가 있다면 어떤 것이 고인지 내놔 보십시오. 집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집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을 한 번 때렸으면 너도 한 번 맞는다. 이것을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때렸으면 한 번 맞는다 할 때 '아하! 때린 것도 나고, 내가 때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맞은 것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 때려 보고 한 번 맞아 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내가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업보가 붙지 않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건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지수화풍(地水火風)입니다. 어떠한 물질이든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거 하나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주 개공(宇宙皆空)이 이 접시 안에도 들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도 지수화풍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이 자체는 집이지마는 그 지수화풍 속에서 생명체가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 어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자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터에 자식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뭣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죠. 아들 형제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지없이 잘 길러서 글방에도 보내고 했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근 여남은 살이 됐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아들 형제를 뒀지만 그 애들은 당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언제 적의 당신 아들이 아니라 지금 현생의 문제인데, 당신이 지은 죄과라기보다도 이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거미와 깻벌레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애릿한 의식이 한데 모여서 당신한테 아들로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면 부부가 깻벌레와 거미한테 잡아먹힐 시기가 되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원수 갚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원수가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일 모레쯤 돼서 겻불을 마당에다 두 무더기를 피워 놓고, 병아리 우리를 두르는 철망을 갖다가 둥그렇게 뺑 돌려서 치고, 공석때기를 쳐서 그 안에서 겻불이 타게 하는데, 그저 구멍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남겨 놓고 다 싹 돌려서 막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겻불이 타면서 연기가 꾸역꾸역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그러시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들 형제가 서당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이 먼저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남은 사람이 뚜껑을 덮어 준 뒤에 자기도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기다리되 아무리 '엄마, 배고파! 아버지, 배고파!'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 보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도 한 시간은 흐른 뒤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알 바가 있느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지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아버지! 엄마!" 하고선 그냥 온통 집 앞뒤로 찾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엉엉 울고 그러는데 항아리 속에 있던 부부는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끼 굶는다고 죽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 하고 그냥 욕설을 퍼부으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인간 환토를 했는데 아,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가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으냐.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느냐!" 하면서 둘이 욕을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밀을 알고 없어졌느냐." 하면서 온통 찾아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던 것이 싹 없어지고는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쫙쫙 끼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오줌독에다 넣고 죽였으니 우리도 잔인하게 피를 빨아 먹어야 할 텐데…." 이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쥐 죽은 듯 하고 있으니까, 얼마 있더니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 연놈들에게 원수도 못 갚고 어떡하느냐? 인제는 앞으로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원수 갚을 기회가 없는데, 어디 갔느냐!" 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다 얼마 있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시간 반을 있다가 나와 보니까, 하여튼 한쪽은 거미고 한쪽에는 깻벌레인데 말입니다, 오물오물하더랍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죽인 수효대로, 애 적부터 죽인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겻불에 엉겨 붙어서 죽은 놈도 있지마는 오물오물하는데 너무 징그럽고 너무 기가 막혔더랍니다. '그게 아들이었다니….'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로 뭉쳐졌다니….' 하구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 있나. 또 대의적으로 본다면 오대양 육대주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지구 벌레 아닌가. 그럼, 지구가 우리 인간의 집이라면 그 집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찰나찰나 돌아가는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지켜보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의 그 오장육부에는 사생(四生)이 들어 있습니다. 화(化)해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생(濕生), 태로 나는 태생(胎生), 이런 네 가지의 종류를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생도, 태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고 알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화해서 나는 생명들도 많고 습생도 많습니다.

그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종류를 우리가 관찰해 볼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에 그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나의 한 혹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

☞ A18면으로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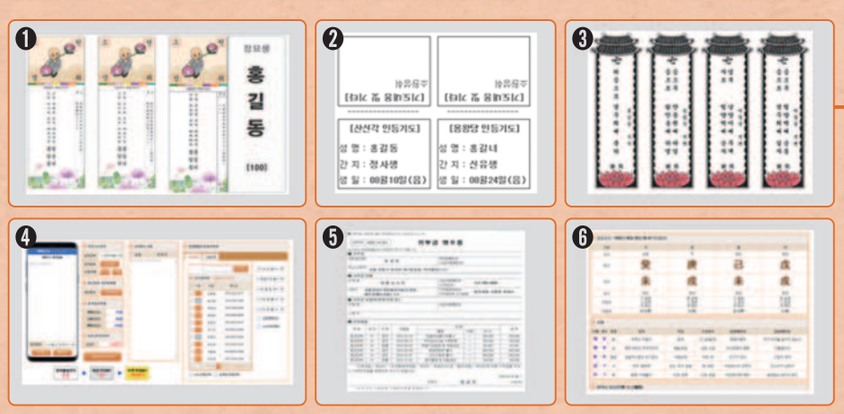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다

☞ A17면에서 계속

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 "중이 무슨 그런 소릴 해!" 하겠지마는, 중이라는 것은 중심, 중용, 바로 우리의 원심력의 근원,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오신통(五神通)의 근본을 누진통(漏盡通)이라고 그러는데 누진통이라는 그 이름도 놔 버린 바로 그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사생의 문제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문제가 인연 따라서 모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깡통의 마음을 썼다면 깡통의 마음 차원을 가진 것끼리 인연이 됐을 거고, 내가 금의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여서 이 몸이 됐을 거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쇠 쪼가리를 주워다가 금방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금을 무쇠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보석을 넝마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넝마를 보석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끼리끼리들 모여 인연 따라서 우리의 한 몸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십억 마리가 들끓다가 하나의 지도자만 남기고서는 그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심령만, 바로 대장으로 뽑힌 그 물질 하나에 동일하게 같이해 줍니다. 그러면 임신이 돼서, 그 어린애가 자라는 대로 피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차원대로 같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는 대로 사생은 또 들어가는데 인연 따라서 차원대로 가서 같이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과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업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걸 구태여 업보다, 인과다, 고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아 달라 이런 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가 금이라면 바로 금의 인연을, 또 무쇠라면 무쇠의 인연을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본인 자체가 무쇠기 때문에 무쇠가 오는 거죠. 본인 자체가 금이라면 금이 올 테죠.

그래서 무쇠나 깡통이 서로 부딪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듯이, 한집안 가족이 서로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렇고 벌레들도 그렇고, 화생이든지 습생이든지 태생이든지, 모든 게 다들 쫓기며 쫓으며 잡아먹히며 잡아먹으며, 피를 흘리며 서로가 부딪치고 우는 이러한 것이 아마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벌레의 세계는 벌레의 세계대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각박하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인생살이 같습니다. 또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대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넝마면 넝마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을 붙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넝마는 넝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재생하는 대로 또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역시 또 무쇠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아궁이 뚜껑이 됐다면 아궁이 뚜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다시 나옵니다, 재생이 돼서. 인간도 역시 요 모습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업보가 없다는 생각과 있다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업보가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난데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이죠. 만약에 천차만별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가 있고 고정됨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도 인과도 업보도 거기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고정 관념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오고 가는 거 먹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진리며 부처며 법신(法身)이며 화신(化身)이며, 이런 것이 종합돼서 삼위일체로 회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벌레들의 마음인 의식 자체가 바로 자기 의식 속에 들어와서 한데 뭉쳐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해 가지고 아들로 나온 겁니다. 자기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생명체들과 모습들로 각각 해 가지고 나왔지마는 그것이 변해서 본래로 돌아가니까 그 깻벌레와 거미들이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말고 구더기가 파리가 된 거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파리는 구더기를 짊어지고 나왔던가요? 아니, 구더기를 버리고 파리가 달리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라면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고 구더기는 파리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전생을 꼭 바깥에 있는 줄만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잠재의식 카세트에,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는 동안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살던 얽히고설킨 그 습이 모두 감겨 있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짊어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각본대로 카세트에서 솔솔 풀려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팔자 운명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팔자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한 대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알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나의 근본 주처인 참나가 현재 나를 다지고 다져서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업보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모두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그 공한 자리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붙을 건덕지가 어딨으며 기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심나걸랑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내놔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카세트에서 각본대로 나오는 그 자체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녹음시킨다면 수억겁 동안 감겨 있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어 넣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채우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 그런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채워졌다 해도 틀리고 또 비었다 해도 틀리니, 채워지면서 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워지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여하게 지금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박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항상 '나'라고 하고 내가 했다고, 남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또 내가 남을 망하게 했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산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뭐, 이런 따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물질적인 50%만이 아주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50%의 안 보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략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나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감개무량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관(五官)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과학이 발전이 됨으로써 또 그 물질한테 인간이 먹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 말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계에 말린다면 인간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본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쌓아 온 습을 다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강도질을 했든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러는데, 할머니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아내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그 모습 하나를 가지고서 행은 자동적으로 항상 바꿔 가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가지 역을 하십니까? 식구가 여럿이면 이 식구 만나고 저 식구 만나고 그럴 때마다 자동적으로 역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남편 만나면 달라지고 아내 만나면 달라지고 자식 만나면 달라지고 자동적입니다, 그건. 벌써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달라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떤 거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는 판국이니 이게 광대무변한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그러는데 불교는 어떠한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불성, 영원한 불성,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법(法)은 바로 정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거는 교(敎)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한생각이 엄청난 문제를 자아낼 수 있어서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는가 하면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몸에 수십억 마리의 사생이 들어 있는데, 그 수십억 마리의 마음들이 만약에 (가슴을 짚으시며) 자기 주인공인 그 근본을, 주처를 세우지 않아서 주처가 없다면 빈집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서 막 놀다가 그저 집안도 망가뜨리고 이러는 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 속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어야 지금 수십억 마리의 모든 애들이, 마음이 말입니다, 집을 지킬 수 있다 그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들어갔다가 왕래를 하고 있고 딴 데서도 왕래를 하고 있으니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방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몸이 다닐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쓰러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 만약에 주인이 없어서 그 모습들이 왕래 없이 왕래를 하고 들락거리다 보면 내 몸은 벌써 어디 한군데가 망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다 하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마음 하나가 벌레라고 합시다. 그 마음 하나의 벌레가 악이라 하면 악의 씨가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 있고 선의 씨다 하면 선의 씨대로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도 고정됨이 없고 병도 고정됨이 없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서 이것이 이 병의 약이라고 내놓아도 얼마 안 가면 그거는 벌써 무효가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달리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병 증세는 연방 나오고, 그러니 약을 자꾸 달리 연구를 해야 하는데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연구할 때 열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의 무서운 이치라고 볼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 국가를, 세계를, 우주를, 이 모든 거를 우리가 극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강도질을 했든 무엇을 했든**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위 법문은 87년 11월 19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 복지 실습과 귀한 인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연초 학점은행 과정 등록해**
**사회복지사 2급 공부 시작**
**관념적인 복지 이해에 반성**

**120시간 복지 현장 실습서**
**현장의 어려움 인식하게 돼**

**어려운 곳 살피는 복지사들**
**마음 따뜻해지는 귀한 사람**

연초에 사회복지사2급 학점은행과정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왔다. 기왕에 본사의 사회복지법인에 상임이사의 일을 보고 있었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침 종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무원 중에 지난해 학점은행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 자문을 받았다.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이해가 많았나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다. 강의듣기와 보고서제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꾸준히 잘 공부해내었다는 기쁨이 남았다.

문제는 사회복지실습 과정이었다. 시간으로 120시간을 온전히 채워야 했다. 하루 8시간씩 하면 15일이다. 마침 잘 아는 비구니스님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 상담을 했더니 본인이 일하는 복지관에서 실습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불교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고 자기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10월 초부터 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일정을 조정하였다. 본사와 종단 등 중요한 행사나 회의가 있는 날은 빼고, 주말을 제외하고 날을 잡아보니 10월 말까지면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구니스님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나의 실습을 맡겼다. 내 입장에서도 오히려 제대로 실습을 할 수 있는 맘 편하고 좋은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는 실습생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기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습생을 받으면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가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찌보면 많은 혜택과 배려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무척 고마운 일이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복지관 직원들의 일상은 상당히 바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로 인해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많이 써야 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 지방의 작은 도시 복지관에서 한 달 가까운 실습기간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현실과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지역과 인근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복지관에서 일하며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늙어온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보다 나은 복지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직원과 현장에 나갔을 때 여성 직원들이 전자장비를 자연스럽게 설치하고 조정하며, 좁은 농로를 여유 있게 후진하며 운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자 "사회복지사는 누구든 승합차 운전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담담한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실습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자주 접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이름도 다 기억하고 친근함이 많이 형성되었다. 복지관에서 자주 만난 어르신들과 관장 스님은 실습이 끝나더라도 다시 오라고 말씀하곤 한다.

'잊지 않고 자주 오리라' 생각을 다져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 탄소발자국 줄이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나는 매일 출퇴근길에 카레이서처럼 차를 달렸다. 출근길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침 회의 시간에 맞추려고, 퇴근길엔 하원한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달렸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퇴근길은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지만 그 때의 습관이 좀체 사라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지구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환경 칼럼을 쓰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하고 질책해도 어쩔 수 없다. 차가 없다면 나의 여건상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엄청난 양의 탄소발자국을 지구에 남기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생활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요인은 출퇴근 교통수단이니 출퇴근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자가용 사용자로서 나도 지구에게 엄청나게 미안하다.

이처럼 탄소발자국은 생활의 전 영역에서 남는다. 요즘 식당에서 컵 대신 사용되는 종이컵 하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일까? "저는 종이컵입니다. 몸무게는 고작 5g이지만 탄소발자국은 11g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종이컵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다. 종이컵은 몸무게보다 두 배는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132,000톤에 달하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 4,725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컵을 분해하는 데 20년이 걸린다. 내가 쓴 종이컵은 쓰레기통에 버려진지 오래지만 11g의 어두운 탄소발자국은 지구에 그대로 남겨진 것이다. 탄소발자국이 많아질수록 오존층은 얇아지고 기후 온난화를 불러온다. 오늘 내가 한 잔의 커피나 물을 마시기 위해 무심코 사용한 종이컵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 끼치는 종이컵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종이컵으로 가던 손이 머그컵이나 텀블러로 향하지 않을까? 설거지가 번거롭다고 종이컵을 내놓으려다 유리컵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방법은 없다. 발을 내디뎌 걷는 내 행위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고 있고, 휴대폰, 과자 한 봉지, 컴퓨터, TV 등 모든 것이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면 줄이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차선책이 최선책이니 순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전등은 끄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하루 내가 남긴 탄소발자국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걸 잊지 않고 일상의 사소한 불편을 감수해 나갈 때 그것들이 모여 변화가 되고 지구를 위하는 우주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뒤에 남는 탄소발자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이 글 역시 종이에 인쇄되어 나오기까지도 탄소발자국을 남기니 지구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빚을 조금은 탕감 받을 것 같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 동북아평화, 불교가 마중물 되길

정치 ·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종교를 통한 민간교류가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는 현재 여기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상황을 풀어가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서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학술적으로는 공감능력 배양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먼저 한국불교 주요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 30일 중국 광동성 주해시 보타사에서 열린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 참가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3국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3국 불교도는 선교방편의 지혜로 모든 이들이 원한을 풀고 차별을 없애며 분쟁을 봉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큰 틀에서 볼 때 세부적인 한일관계가 언급되진 않았으나, 이는 각국의 정부를 향한 불교도들의 준엄한 외침으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계종 교육원은 교육아사리회와 '발전적 한일관계에 대한 불교적 제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코삼비 사건에서 설한 6가지 화합 방법을 갈등의 해법으로 조명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선 교육분야서 '증오'가 아닌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지만 그 어느 종교보다도 평화와 화합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가장 엄중하게 벌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이 뜻을 모아 각국의 갈등상황을 타개하는 마중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대학 포교, 니즈 파악부터

대불련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이 10월 30일 캠퍼스 포교 일환으로 전개하는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중 하나로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4개 대학에 이어 올해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올해 각 대학 불교동아리 포교 현장에서는 신입생 급증이란 희소식이 날아왔다. 다양한 대학 포교 전략과 함께 템플스테이, 명상 등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신입생들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우려의 대부분은 불교동아리 활동의 터전이 되는 동아리방이 노후했다는 것에 있었다. 예전에 만들어진 불교동아리방의 경우 불단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곳이 태반이다. 사실상 동아리방이 아닌 법당의 역할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동아리방이 현재 대부분이다.

불교동아리에 대한 불자학생들의 니즈가 단순한 신행활동이 아닌 불교기점으로 학생들이 모여 스터디, 여행, 상담 등을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변한 상황에서 동아리방의 변화가 절실하다.

다행히 대불련총동문회 측에서 사업을 통해 매년 2~4군데씩 동아리방을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대불련총동문회 측에서도 사업 확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리모델링 한 건당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신입생들이 대폭 늘어나는 현재 마중물로 이들을 위한 터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대불련에 대한 종단 지원은 예전만 못하다는데 있다. 포교에는 전반적인 진흥과 함께 거점, 특수분야 포교 또한 이어져야 한다. 대학포교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불련, 특히 대불련 불교동아리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神通(신통)없는 깨달음은 거짓이거나 반쪽이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부처님 당시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통한 神通妙力(신통묘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깨달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깨달음의 차이를 보자면 석존 제자들이 아라한 이상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과 아울러 신통묘력을 다 갖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랫 단계로써 정신적으로만 깨달은 것이다.

여기 신통을 증득한 조사스님(서산, 사명, 진묵, 원효, 만공, 경허 등)들의 일화를 보더라도 사천왕이나 대법천 등 대화는 물론, 하늘에서 공양을 받았다는 등 일화가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들과의 대화, 신들의 도움, 신통묘력을 보여 주었었다. 근데 지금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말 잘하는 앵무새들만 서로 경쟁적으로 말잔치만 난립하고 있다. 체험했다고 말은 하나 증득한 바를 보여주는 이는 아예 없다.

그러니 "정신을 잃어버린 이 (조현병)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라고 물으니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분명 얘기해야 할 것이다.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법력이 부족해서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수행력(법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 • •

**〈사례 ❶〉**

시간이 많이도 흘렀다.

소납은 학부시절 주말이면 청량리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열차(무궁화)로 태백에 있는 은사스님 절과 학부(서울 ㅇㅇ대학)를 2주에 한번정도 갔다 오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로 귀가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예매한 열차에 스님 일행(4名)이 몸을 실었다. 그 때가 자정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면 종착지인 청량리역에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한다. 피서철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열차 안 통로까지 붐볐다(당시는 입석표도 팔았음).우리 일행들은 미리 표를 예매해 놓았기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걸망을 제각각 벗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편한 복장으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객실 내가 소란 스럽다. 알고 보니 통로 한 가운데서 40대 중반의 한 여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고 있는 것이다. 그 때 그 일행(6名)들은 벌써 119에 연락을 해 놓았으나 그 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바로 여객 전무와 공안이 쫓아와서 열차 안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을 먹이고 또 탑승객 중 누군가는 재빠르게 민간요법으로 손을 따주고 주무르는 등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로지 다음 역에서 기다리는 119 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통로 중간에서 뒹굴고 있는 여인과 소납이 앉아있는 거리는 불과 5~6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승복을 입고 있는 자가 그 장면을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우리 일행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한이 없었다.

그래 일어나자, 이 순간 불보살이 보고 계실 거다. 나의 행동을....

"나무관세음 보살"하고는 일어나 선반위에 걸망을 풀어서 108 염주를 찾으니 염주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 염주는 출가 전부터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염주가 보이지 않는다. 일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내 사제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사제는 태백 절에 있을 적에 환우들을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 이미 일어났으니 부닥쳐보자 하고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걸어 나가니 열차 안 승객들이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많이 아프냐고... 인사말을 던지자 단번에 그렇다고 하길래.. 그럼 이 환우를 의자위에 눕히시고 일행 분들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둘러 서십시오. 지금부터 이 스님이 이 여인의 신체부위 어느 곳이든 손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 누구랄 것이 없이 동시에 좋다라고 했다. 잠시 집중을 하고는 손을 명치부분에 살포시 갖다 대고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통이 멈추었고, 자는 듯 조용해졌다.

그렇게 약 5분정도 기도를 마치고 이젠 괜찮으니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하며 일어나자 환우가 그 순간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갔다오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고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누구랄 것도 없이 스님 법명이 무엇이며, 어느 절에 계시냐 등등.. 귀찮을 정도로 묻기 시작한다. 그 때 소납은 아직 수행중인 납자라면 훗날 공부가 완성되면 뵐 날이 있겠지요..하고는 자리로 돌아왔다. 사제가 엄지척을 보내며 환하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 혹여 이 글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

**〈사례 ❷〉 위말기암 74세**

큰 절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 오랜만에 찾아 왔다. 그래서 그 동안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급한 듯,

스님, 사실은 속가에 부친이 위말기암인데 전이가 되어 2달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서울 ㅇㅇㅇㅇ대형 병원에서 나와 지금은 형님 집(인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네 전 가족이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스님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불보살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이 도안이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래 또 부닥치자..나무관세음보살

스님, 스님이 보호자와 함께 부친을 바로 데려오라고 하고는 기다렸으나 이내 오지 않고 시간이 꽤 걸렸다. 왜냐고 물으니 절집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한사코 고집을 피우길래 이 시간 이후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하며 모셔오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 때 온 날짜로 봐서는 시한부 2달에서 한 달이 이미 지났고 살 수 있는 날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스님과 스님 모친, 부친 해서 셋이서 한방을 쓰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예불부터 환자를 제외한 모친까지 법당에 나오게 했다.

첫날 저녁 공양시간이 되어 전부 나오라고 하니 부친을 제외한 스님 4명과 모친해서 5명만 나온 것이다. 그래서 환자를 모시고 나오라고 하니 모친 왈 "아예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업고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서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게 했다. 그 때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 같이 공양 계송을 하고 수저를 드는데 부친은 미동이 없다.

그 때, 수저를 드시오 몇 번을 하니 모친이 음식을 들어본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전에 병원에서 우유, 죽 같은 것을....그 이후에는 주사에 의지했다고 한다.

그럼 전부 수저를 놓고 환우가 수저를 들 때까지 손을 내려놓고 있으라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부친이 조그마한 소리로 이 스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길래 "좋습니다. 이미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하고는 이왕 드시다 가시면 혈색도 좋을 것 아닙니까 하며 드세요를 했다.

드시다 가시면 이 스님이 49재를 정성껏 지내서 꼭 천국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천국에 보내드릴 만한 힘(법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입 드세요 하니 숟가락을 드는 것이다. 들었으면 밥(잡곡밥)을 뜨세요 라며 종용했다

이미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본인 때문에 전부 손 놓고 있는 모습에 미안했던지 그제서야 밥을 뜨서 입에 넣는 것이 아닌가..

천천히 조심스레 씹는 모습을 보고 전부 공양합시다 했다. 그렇게 해서 공양을 반그릇 정도 억지로 드셨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다. 저녁이 되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 주었는데 배를 보니 이미 개복을 한 흔적이 있었다. 물어보니 형제들이 고집을 피워 병원에서 동의하에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공양도 전날처럼 공양을 들게 했다. 그러고 저녁나절에 방귀와 변을 봤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절 마당을 조금씩 걸어 다녔고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는 다 같이 가벼운 등산을 했었고 그때부터 생명을 살려 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매일 절 주위에 풀을 뽑고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갚고 가겠다고 하신지 3주가 되어갈 때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 술, 담배, 커피 등등을 일체 들지 말 것을 얘기하며 각서에 서명케 했는데, 뜻밖에 감사의 편지를 내미는 것이다. 지금도 등산 때 찍은 사진과 감사의 편지를 가끔 본다.

• • •

또 다시 방송 매체에 제안합니다.

예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10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처럼 사주, 철학, 점, 삼재 등 무당 프로는 고사하고, 참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구원, 가피를 체험할 수 있게 소문만 무성한 종교인과 방송용 성직자를 출연시켜 여기에 조현병, 말기암 &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이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그 법력(신통력)을 시청자들이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소납은 일체 비불교적인 것(사주, 철학, 삼재, 방생, 운기도, 인등, 성지순례 등등)을 하지 않으므로 이 법공양을 알리는데 제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법공양을 최우선하라 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특히, 금강경과 달마스님께서는 아무리 큰 절을 지어주고 금, 은, 보화를 갠지스강 모래수만큼 시주한다 해도, 달마스님과 양무제의 대화에서 보듯이 그것은 무공덕이라 하시면서 오로지 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사주, 철학, 인등, 삼재, 등등을 멀리하고 오로지 바른 법공양만이 최상의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이 제정적인 문제를 신문사와 협의해 주신다면 소납은 계속 바른 정법을 통한 체험, 득한 사례를 계속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법공양으로 인해 협박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우와 관련하여 거짓인지, 아닌 지는 지면에 이미 공개된 전번으로 하시면 모든 신상 및 병원까지 공개할 것이고, 이 법공양에 오류가 있다면 당당히 이 지면에 글을 쓰시든지, 방송을 타시든지 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무조건 찾아와서 면담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전화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3143-5302 [무 ○]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4807-6932 [박○○]
- 010-5699-3173 [박○○]



# 불교서 녹색 미래 찾는 '환경보살'



테마人 유정길(59)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부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의 문제가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법의 실천이 전체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수없이 많다. 출가하여 사문의 길을 걷는 길부터 여러 분야에서 불법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까지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부터 인류 전체를 들여다보는 일까지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불법(佛法) 실천의 수많은 길 중에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길은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일까. 그 어디쯤에서 길을 시작하고, 지금도 그 어디쯤에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가는 이가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회단체를 만들고 여법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것에 삶을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을 '생명살림'이라고 말하는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부처님 말씀의 그 어디쯤에서 서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의 유정길 운영위원장이다.

###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3년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 과천과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 과천을 지나 서울에 들어선 두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였다. 두 사람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57일 동안 도반들과 함께 삼보일배로 부안서 서울까지 왔다. 한국환경운동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 드라마의 중심엔 한국불교가 있었고 한국불교를 대신하는 이름은 불교환경연대였다.

불교계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승인 등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인 마구잡이 지역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지자체 출범 이후 2000년대에 걸쳐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 불교계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속리산 문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 홍제암 계곡 유원지화, 문경 봉암사 주변 온천개발, 백담사 입구 종합휴양지 조성 등 불교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 국책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됐고,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사업이었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34km의 방조제로 갯벌을 메워 4만 2천ha 규모의 간척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던 어민들의 터전과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은 57일간의 삼보일배로 자연환경을 배제한 개발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이때의 '삼보일배'는 다른 환경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시위였다. 밖으로의 외침이 아닌 안으로의 참회였다. 사업 당사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 공업중생으로서의 깊은 참회의 발현이었다. 환경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다.

### 새로운 환경운동, 불교환경연대 출범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심인 불교환경연대의 시작에는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수경 스님 등과 함께 2000년 6월 출범한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에서 지리산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지리산 댐은 무산됐다. 지리산 댐 건설을 저지한 범불교연대 회원들은 그 동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환경운동 단체가 탄생한다.

유정길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01년 9월 수경 스님을 초대 상임대표로 한 불교환경연대가 문을 연다.

불교환경연대는 이후 한국환경운동사와 함께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운동,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백지화 운동,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부안 해창 갯벌~서울 광화문), 천성산 살리기 운동,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활동, 발우공양의 생활화, 빈그릇 운동, 종교인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숲해설가 양성,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등 이 땅의 올바른 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2016년까지 불교환경연대의 역사에 유정길 위원장의 이름은 없다. 그는 창립 당시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 불교와 만나다

**수배 학생시절 법륜 스님 만나**
**해인사 수련대회서 불교 입문**
**불교교재 편집 도우며 본격 공부**

### 불교와 만나다 법륜을 만나다

1985년 유정길은 수배자였다. '운동권' 학생이었다. 유 위원장은 서울 봉천동 서울대 근처 소림선원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법륜 스님이 있었다. 그리고 유 위원장과 같은 운동권 학생 20여 명이 몸을 숨기고 있었다. 유 위원장은 불교의 '불' 자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법륜 스님도 지금의 법륜 스님은 아니었다. 불교의 '불' 자도 모르는 유 위원장은 하루에 4번 씩 기도와 능엄주 독경을 해야 했다.

"하루에 2천배는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 유 위원장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영남불교학생회 수련대회에 함께 하게 된다. 실무팀으로부터 지도교사를 위임받은 유 위원장은 중고등학생 700여 명과 함께 수련대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불교를 만난다. 법륜 스님의 '부처님의 일생',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비롯해 삼천배, 새벽예불, 성철 스님 등 새로운 세상과 만난다.

"그때 성철 스님도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법륜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통해서 불교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유 위원장의 행보에서 법륜 스님은 큰 인연이었다. 그 인연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다. 수련대회에서 돌아온 유 위원장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마침내 구속되어 1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

B2면에 계속

유정길 위원장은… 1986년 수행공동체 정토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불교수행과 사회운동을 해왔다. 에코붓다의 이사로 '생태사상과 교육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제로-빈그릇운동' 등 대안적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공양주로 있다가 9.11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칸다하르, 바미안 등에서 4년간 긴급구호와 개발협력활동을 했다. 돌아와 6년여 평화재단의 기획실장으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운동을 펼쳐왔다.평화재단 기획실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국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아프가니스탄 주재 JTS 카불지원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소장, 한살림 마음살림위원회 연수위원,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정토회 에코붓다 이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 운영위원,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2016년부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0〉

B5 문화
임석환 불화장 괘불전

B6 학술
동국대 인문硏 추계 학술대회



아프간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정길 위원장.


정토회 에코붓다 도반들과 함께(윗줄 우측 두번째 법륜 스님).

# “환경, 우리 삶의 문제… 나를 바꿔야”

## ‘유정길 운영위원장’

B1면에서 계속

### 다시 만난 불교, 정토회 시작

1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유 위원장은 어느 날 우연히 소림선원 시절의 인연을 만난다. 그는 여전히 법륜 스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법륜 스님은 소림선원을 나와 서울 비원 근처에 포교원을 열었다. 비원포교원이다. 유 위원장은 비원포교원과 다시 인연을 이어간다. 비원포교원은 대학생불교회 학생들을 위한 불교 교재를 만들고 있었다. 교리교육의 지침서인 〈실천적불교사상〉이었다. 유 위원장은 교재의 편집에 동참하면서 다시 많은 불교공부를 하게 된다.

1988년 1월, 비원포교원은 홍제동으로 자리를 옮겨 정토포교원을 개원하고 중앙불교교육원을 설립한다. 3월과 4월에 불교사회교육원과 불교사회연구소를 열면서 정토회가 시작된다. 유 위원장은 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민족불교학당, 민족여성학교, 민족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불교사회교육을 담당했다. 당시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대적인 사회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을 때였다.

유 위원장이 담당했던 불교사회교육은 일반사회교육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교육이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노동관, 여성관, 인권 등을 말한다.

### 폐문정진, ‘환경’과 만나다

1990년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유 위원장이 이끌고 있었던 불교사회교육원을 비롯한 모든 정토회 모임들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3년여의 폐문정진에 들어간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모든 교육과 실천들을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변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사회단체의 노선변경은 배신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토회 모임들은 대학생불교회, 불교청년회, 불교사회운동단체 등의 지원사업 등 모든 활동과 교육을 중단하고 불교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친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그때 많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문학에서부터 과학, 사회학 등 각자 자신의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게 맡겨진 숙제가 ‘환경’이었어요.”

유 위원장은 이때 환경의 문제에 눈뜨기 시작한다. 법륜 스님의 부촉이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환경이라는 분야가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당시 시대적 흐름에서 환경은 노동이나 인권, 평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변방의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환경의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환경문제,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인류가 지향해온 발전과 개발, 진화 등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는, 패러다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성장,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된 지상목표가 완전히 난센스라는 것이죠. 환경문제가 주는 메시지는 한정된 자원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명이자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실천의 과보가 ‘환경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환경과 만나다**

**정토회 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
**법륜 스님의 권유로 ‘환경’ 공부**
**공양주 소임 자청 새로운 모색**
**아프칸 긴급구호 현지 팀장 파견**
**2001년 불교환경연대 창립 선봉**
**2016년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유 위원장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실천들이 무명과 미혹에서 출발한 잘못된 실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문제가 던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발전과 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과 진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문제가 자연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발전과 개발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가지의 화두가 도출됐다. ‘좋은 생산력은 무엇일까’, ‘좋은 생산관계는 무엇일까’,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였다. 답은 부처님 말씀 중에 있었다. 그 동안의 실천은 ‘너’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답은 ‘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천은 ‘우리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였다. 그 동안 밖을 향해서 던졌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이었다. 1993년 9월, 정토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만일결사’에 들어간다. 유 위원장이 이끌었던 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환경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태학교’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그리고 1999년 ‘에코붓다’로 다시 한 번 그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된 정토회는 북한동포 돕기, 쓰레기 제로 운동, 아프칸 지원사업, 빈그릇 운동, 4대강 살리기 24시간 릴레이 기도 등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이끌며 새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을 이어갔다.

### 정토회 밖으로

유 위원장은 2001년부터 정토회 공양주 소임을 맡는다. 또 한 번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02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내전이 끝난 아프카니스탄의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사업을 위해 카불 지원팀장으로 파견되어 2005년 8월까지 구호와 마을개발지원활동을 펼친다. 아프칸에서 복귀한 유 위운장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과 개발협력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정부의 ODA정책에 대한 논문, 발표, 강연. 토론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불교내의 해외개발NGO들의 활동을 돕고 설립을 지원하고 개발구호의 실천적 이론을 개발 학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2005년 8월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정토회 법륜 스님이 주도하여 설립한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정책연구 민간기구 ‘평화재단’의 기획실장으로 활동했다.

유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깊은 지병으로 2010년 요양을 위해 정토회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필요로하는 곳에 잘 쓰이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한살림 마음살림위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국민농업포럼, 지역아동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혜공유협동조합 등이다.

### 다시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었던 불교환경연대는 2010년 수경 스님의 칩거로 침체기를 맞는다. 2015년 9월, 칩거 중이었던 수경 스님은 침체된 불교환경연대가 더 이상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경 스님의 생각 속에는 유정길이 있었다. 그가 맡아야 할 직책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2016년 조직을 정비한 불교환경연대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함께한다.

“그 동안 불교환경연대가 사회적 문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교 자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복귀한 유 위원장은 회원 수를 늘리는 등 불교환경연대의 복원과 더불어 불교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기 시작했다. 생명살림 실천운동,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 등의 커다란 실천 속에서 숲과 국립공원 지키기, 강살리기 방생운동, 녹색사찰 만들기, 사찰숲생태활동, 생명살림 생활실천, 환경법회,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실천은 유 위원장이 새롭게 눈 뜬 ‘환경’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다. 먼 길을 돌아 자신이 만들고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유 위원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였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의 모든 사무가구는 녹색이었다. 몸속까지 녹색일 것 같은 유 위원장의 합장한 두 손에서 녹색의 내일을 본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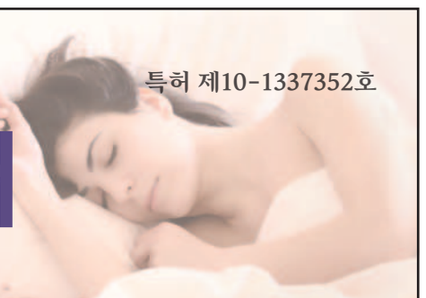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 상호 참회… 계율 청정 수행자 '감동'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⑳ 빠옥 총림에서 생활 〈10〉





이른 아침 선방에 도착하면 미얀마 스님들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쭈그려 앉아 무언 가를 중얼거린다. 이는 서로에게 참회와 축원하는 내용들이다. 계율에 따라 청정하게 사는 스님들의 모습이 감동스럽다.

오늘은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1번째 날(2012년 2월 1일)이다. 간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잤다. 현재의 공부와 관련하여 확인 차 호흡 수행에 관한 경전을 또한 잠깐 들여다본다. 같은 방의 한국 요기는 쉐오민 선원에서 출가하여 탁발도 하는 등 약 3개월 수행을 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떠나올 때 비구계를 반납하는 환계 의식을 하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왔다고 한다. 31살의 나이답지 않게 좌선에 열심이고 진지하다. 그는 3시 30분 새벽 좌선을 알리는 긴 목어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 선방에 오른다. 끝나는 6시에 다른 사람은 모두 내려가도 그는 여전히 몰입해 앉아있다.

이른 아침 선방에 도착하면 미얀마 스님들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쭈그려 앉아 중얼중얼 거린다.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명, 세 명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잘못한 점을 서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마하시에서도 외국인 숙소를 관리하는 스님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스님이 아침에 그 같은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의 의식도 있다. 그제 공양청에서 만난 스리랑카 스님이 미얀마와 다른 스님 간 정형화된 덕담과 참회문을 적어주었다. 부처님께 올리는 예를 미얀마나 스리랑카 모두 비슷하지만 스님간의 인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빠알리와 함께 영어로 번역해 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Namo Buddhāya)"를 선창한 후 먼저 법랍 낮은 스님이 법랍 높은 스님에게 "스님, 나에게 존경을 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법랍 높은 스님이 낮은 스님에게 "그대에 행복이, 그리고 열반을 성취하기를" 말하면, 법랍 낮은 스님은 "스님이시여, 제가 성취한 복덕을 기뻐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법랍 높은 스님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대의 공덕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며 법랍 낮은 스님은 "스님께서 성취한 공덕을 나에게도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

**법랍 높은 스님은 "아주 좋습니다! 그와 같은 공덕에 스님도 기뻐해주길 빕니다"라고 하면 법랍 낮은 스님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스님의 공덕을 기뻐합니다. 만약 나에게 있어 신체적 언어적 그리고 생각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를 빕니다"라고 한다.**

**법랍 높은 스님은 "내가 그대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대도 나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법랍 낮은 스님은 "아주 좋습니다! 스님을 용서합니다"라고 답한다.**

**법랍 높은 스님은 "그대에게 행복이, 열반을 성취하기를"라고 축원한다.**

**이른 아침 옹기종기 모인 스님들**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 의식**
**존경 · 배려, 공동체 유지의 원동력**
**빠옥 총림은 엄격하게 계율 지켜**
**지계 바탕돼야 韓불교 정화 가능**

수행 공동체는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부단히 실현하려는 행동규칙이 있다. 그래서 승가이고 공동체이다. 구성원들 간에 항상 서로에 대해서 존경과 배려를 보이는 것으로, 부처님은 구성원 사이의 화합을 강조하기를 마치 "우유와 물이 섞이는 것처럼 친절한 눈빛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설하고 있다. 하심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 때 갈등과 대립과 같은 다툼은 없을 것이다.

아침 공양 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어제 마하시 선원에서 온 한국 요기의 식기를 챙겨주었다. 오늘도 스님들은 음식이 든 발우에 화려한 난 한 묶음, 또는 백장미나 국화를 공양물로 들고 이동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처럼 스님들께도 올리는 꽃 공양이 아름답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문화는 불교가 선두에 있고 가장 일반화된 문화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

점심공양 이전에 잠깐 도서관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어 올라갔더니 한국 출신의 상좌부 스님(Saddhama)을 만나 3호실 다른 한국 요기에게 안내했다. 젊은 요기는 스님에게 정성스런 삼배를 올리고 반가워한다.

도서관에서 한국 젊은 여성 요기가 초기경전을 빌려간다. 잠깐 눈인사를 나누고 아랫절에 한국 여성 수행자가 몇 명 있는지를 물으니, 비구니 스님 11명과 재가자는 자기 혼자라고 한다. 식사를 하러 길을 가는데 3호실 요기가 개울가로 간다. 이유인 즉 목욕탕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잡아 방생하기 위해서란다. 착한 마음씨이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활력이 넘친다. 그런데 그 개구리는 나도 5~6일전에 보아왔다. 1m80cm가 넘는 높이의 수도꼭지 끝에 사는데 샤워하려고 무심코 옷을 걸어두었다가 보니 개구리가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신기하기만 했다.

어떻게 이 높이에 그것도 수도꼭지 끝에 처소를 마련하고 사는지? 처음에는 누가 장난으로 옮겨다 놓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개구리 표정이 제 집처럼 너무 자연스럽다.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을 두어 장 촬영했는데, 같은 방 요기가 하는 말이 이곳 개구리는 타일 벽도 잘 타고 올라간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마하시 선원에서 온 요기에게 "아! 그 개구리, 목욕탕에서 사는 것 같은데요"하니 개울가에 방생하기를 멈칫거린다.

점심 공양을 위해 줄 서 있는데 수행점검 인터뷰 해주시는 꼬비다 스님이 갑자기 나타나 나에게 '선(禪)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Jhanas)'이라는 제목의 앞 뒤 한쪽 자료를 내민다. 니끼야에서 나오는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이다. 너무나 큰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한다. 나 또한 이미 이전에 대부분 확인한 경전 구절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보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구일 것이다. 오늘 점심 공양은 유럽 여성 요기가 보시한 것인지 탁발 행렬의 마지막에 서서 사과 하나씩을 각각 나누어준다.

이곳 스님들은 각자 자기 수행과 공부를 한다. 다른 어른 스님을 모시기 위해 따라다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 스님들이 움직이는데, 항상 시자 스님 등이 함께 하는데, 이곳에서는 각자 홀로이기에 누가 큰 스님인지도 잘 모른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선원장 스님이 79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선원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구감하는 데 항상 혼자이시다. 한국의 젊은 스님은 이 점이 크게 인상적이어서 우리와 이곳 불교와 큰 차이점처럼 가끔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생각되어진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 또한 끝내고 내려오는데 듬성듬성한 백발의 스위스 요기가 엎드린 채 젊은 유럽인과 함께 두꺼운 청테이프로 공양청에 깔린 카페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붙이고 있다. 보통 유럽인이 신앙심 없이 명상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요기는 부처님 사진을 좌선하는 곳에 모시고 있다. 다른 이들의 편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그의 신심에 존경이 간다.

거처로 걸어오면서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에 있어 문제, '대승불교의 위기' 그리고 '화두선의 위기'라는 말을. 사실 이 문제는 계율의 문제와 관련하고 있음을 새삼 다시 느낀다. 인도불교사에 있어 단일한 불교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근본분열한 데에는 계율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 등의 학계는 지계 중심으로 상좌부를 보수적, 대중부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그렇게 진보적이라던 대중부는 세계 불교사에 있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현재까지 면면히 불교를 지탱해오고 있는 부파는 다름 아닌 상좌부라는 점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율의 수정과 탄력적인 적용을 주장했지만 그러한 부파는 생명력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침체하다가 끝내 단절되었다는 것은 역사에서 본다. 아마 계율의 예외는 다시 예외를, 끝없이 예외를 허용하여, 끝내는 존립기반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더 큰 문제는 한국불교는 구체적인 계율조항과 이에 대한 일상에서 실제 적용조차 모를 정도이다.

빠옥 총림에 지내다 보면 다시 상좌부와 대중부와 같은 국면을 보게 되는데, 이곳 스님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장에 나온 대로 부처님 계율을 잘 따르는 것으로 자부심이 넘친다. 비구 스님들도 그러하지만 사미 스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툰 영어이지만 "도회지 스님은 담배도 피우고, 꽁도 씹고, 돈도 직접 받고, 오토바이도 타는 스님도 있다"는 등을 거론한다. 이러한 거론으로 계율의 긴장 수준과 자부심 또한 보여준다. 현재 미얀마에서 빠옥 총림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하다.

정기적인 계율 교육도 보아왔지만 특히 돈 문제에 있어 분명하다. 스님들이 돈을 받지도, 소지하지도 않는다. 돈이 필요하면 종무소의 재가자나 정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멀리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해야할 경우 재가자가 버스표 등을 구입하여 갖다드린다. 스님이 생활필수품을 말하면 또한 구입하여 갖다드린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스님들의 경우 돈을 직접 만지지 않고, 가사의 한 귀퉁이에 얹어 놓게 하거나, 부채에 올리게 하는 스님도 있음을 보았다. 계율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성찰은 흥미롭게도 계율을 잘 지키는 빠옥 총림이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청정성이 널리 알려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마하시 선원에서 만난 한 한국 스님은 한국불교를 정화하겠다는 그동안의 어떠한 방안이나 주장도 본질과 먼 이야기라고 단언한다. 계율 수지를 근본적으로 결사하지 않는 한 결코 한국불교의 정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율만 온전히 지키는 모습만 보여주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여기 와서 보니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것 중의 하나는 20대 후반이나 30대의 사람들이 불교 공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난 이들 가운데 더러는 출가를 하여 아직 세상의 때가 타지 않는 듯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하고, 공부에 또한 열의가 있다. 멀리까지 나와 4~5년 이상의 출가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언어 또한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0~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천태소지관 | 천태지자/윤현로 | 운주사 | 6 | 천강에서 달을 보다(25인의 선지식 이야기) | 채문기 | 모과나무 |
| 2 |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김원수 | 청우당 | 7 |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간화심결) | 수불스님 | 김영사 |
| 3 |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 노승대 | 불광출판사 | 8 |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대행스님 법어집) | 대행스님 | 한마음선원 |
| 4 | 요가 디피카 | BKS아헹가/현천스님 | 선요가 | 9 | 마음을 어디에 둘꼬? | 대혜종고/청림지상맑은소리맑은나라 | |
| 5 | 원빈스님의 천수경(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 원빈스님 | 이증버스 | 10 |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선방 수좌의 공부 기록) | 원제스님 | 불광출판사 |

# "삶의 매일 매일이 정면 승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원제 지음/불광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 글은 일상적 경험과 수행 생활을 쓴 것이 많습니다. 현상과 세계는 누구나에게 똑같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의 안목과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만의 삶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자로서 갖게 되는 다른 관점과 안목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풀어내고 싶었죠."

2006년 대학 졸업 후 뒤늦게 출가해 2011년부터 틈틈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수행기를 올리며 신선한 반향과 공감을 일으켜 온 선방 수좌, 원제 스님〈사진 오른쪽〉이 책을 펴냈다. 제목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이다. 저자는 종교학을 전공한 대학 시절, 세상이 가짜 같아 삶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자해를 할 만큼 극심하게 방황하다 불교 수행자의 길을 택했다. 엄격한 자기 절제와 치열한 선원 생활은 수많은 물음을 열어젖히는 과정이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저자는 어떤 답을 구했을까. 삶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아는 것을 끝없이 넓히려 애쓴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로막는다.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을 꿰뚫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앎, 이 책은 그것에 대한 저자의 공부 기록이다. 수행 과정서 겪은 갈등과 성찰,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 '알 수 없는 삶'에 대한 이해와 온전한 받아들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책 속에서 "고정된 실체란 없습니다. 실체화라는 망념의 감옥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로 향한 편중된 집착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그릇된 질문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과 세상은 이미 그대로 답입니다. 질문한다면 고민이지만, 답이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답은 펼쳐진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써먹는 것입니다. 답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질문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답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 따듯한 위로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나

인생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따듯한 힐링의 말과 소소한 지혜를 '치트키(cheat key)'에 비교한다면, 저자의 말과 글은 무사의 정공법을 닮았다. 이를테면 덮어두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 삶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눈앞의 그것,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 온 모든 것을 몽땅 의심하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잘 속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불행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 받은 탓으로 돌리기를 반복하는 이에게 저자는 '자기 상처로 현실을 피하는 도구를 삼지 말라'고 직언한다. 자신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틱한 삶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구속한다며, '당장 내가 쓰는 이야기에서 벗어나라'고도 한다.

그래서 저자의 말과 글은 종종 '힐링(healing) 법문이 아니라, 킬링(killing) 법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킬링은 죽인다는 뜻이다. 내가 아는 것, 알고 있다는 믿는 그것,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며



**2년여 동안 5대륙 45개국 여행**
**붙잡고 있는 것 없애는 것 '킬링'**
**'킬링'은 선수행의 가풍과 같아**

붙잡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멈춰지고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나, 진짜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마치 어두운 밤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껐을 때 달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킬링 법문의 의미에 대해 "요즈음 대세는 힐링입니다. 그러나 저는 존재와 대상에 대한 의심은 그것을 살려내고 복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파헤치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대상의 근거나 믿음, 고정관념, 실체 등이 사라지게 돼 있죠. 즉 킬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방법론이고, 일상 속 생활서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링은 어찌보면 선의 한 가풍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사람은 '지 생겨먹은 대로만 살아도 문제없다' 라고 말한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힐링보다 킬링을 주로 하게 된 이유에는 '선(禪)' 이라는 공부 방식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선은 '의심' 의 수행입니다. 눈앞의 감각 대상과 경험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며, 거리를 두는 것이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저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불교 수행자의 길을 택했다. 경전과 어록 공부, 참선, 묵언 수행 그리고 2년 동안의 세계 일주 만행 등등. 많은 좌절과 갈등 속에서 바깥이 아닌 자신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거치며 온몸으로 불교적 진리를 체득했다. 그 진리의 끝은 '나' 에 머물지 않고 '전체' 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에고(ego)와 아상, 무상과 무아, 공, 불성, 참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교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저자는 선원 생활, 출가 전의 일, 만난 사람들, 책, 영화, 게임 등 자신의 모든 경험을 이용해 들려준다. 저자가 평소 자주 하는 말처럼 '전체' 의 삶을 위해 자신을 '써먹는' 것이다.

〈왜 문제를 극복하려고만 하는가〉에서 지도하던 행자가 절집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절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저자는 딱 보름만 참아보라고 한다. 보름 동안, 시간은 흐르고 상황과 문제도 변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행자의 마음도 변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보름 뒤, 절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심각한 관계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었고, 행자는 다시 수행에 전념했다. 무상(無常), 즉 '모든 것은 변한다' 는 것을 저자는 삶으로, 경험으로 상기시켜 준 것이다. 하루키의 소설 '세계의 끝' 을 예로 든 〈벽을 넘는 용기〉에서는 벽과 숲으로 대비되는 안전한 삶과 불확실한 삶을 통해 우리가 만든 견고한 아상(我相)을 설명한다. 동료 스님을 죽이고 싶었을 만큼 들끓었던 분노를 '인내' 로써 이겨내며 오직 견뎌야 하는 것임을, 그렇게 잘 무사히 지나가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때가 온다며 응원한다.

### '당신'이라는 '판때기' 놀이로서의 삶 권유

자신의 삶은 지금까지 보드판 위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서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실 자기만의 판때기 위에서 살아간다. 흔히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유한다. 그리고 파도는 인생의 크고 작은 다양한 고통이라고 한다. 저자는 파도를 바라보며 분석하고 이런저런 의미를 넣어 규정하지 않겠다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겠다고 한다. '원제' 라는 판때기가 있고 말과 글, 생각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판때기는 어떠한가.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매 순간일 뿐, 나에게 닥치는 상황마다 그때 그때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그 '잘' 에 대한 리듬의 감(感)을 늘이는 데 이 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의 당부이다. "절집에서 큰스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경전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 말고 니 얘기를 해봐, 니 얘기. 저는 매일 매일이 정면승부입니다. 오늘도 눈 똑바로 뜨고 여지없이 정면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제 스님은 책 제목에 대해 말한다.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답만 찾으려고 합니다. 수행에서 답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질문의 근원자리가 무너지면서 모든 낱낱 하나의 소식들이 답으로 드러나는 것 입니다. 질문이 단지 멈춰질 뿐이고 분별하는 마음이 멈춰지면서 하나 하나의 소식들이 진실한 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입이죠. 누구나 삶의 질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만, 종국에는 질문하는 그 근원마저도 사라지면서 낱낱 하나가 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제 스님의 9가지 킬링 법문**

**"나와 세상에 속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는 법"**

**1. 꼭 삶이 근사해야 할까=**욕망의 악순환을 멈출 때 삶은 온전하게 펼쳐집니다.

**2. 무엇이든 의심하기=**제대로 의심하게 된다면, 열린 만큼 경험하게 돼있고, 깨어난 만큼 만나게 돼있습니다.

**3. 자신이 의지하는 등불을 꺼라=**등잔불을 끄면 본래 있던 달빛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4. 판단 중지=**'내가 모른다고,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5.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지 마라=**고통과 상처를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힘들지만 천천히 잘 보내는 연습을 하면 본래 있던 자유가 곧장 눈앞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6. 문제는 없다. 상황이 있을 뿐=**우리 삶에 고정된 문제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만이 있을 뿐.

**7. '나'는 이겨야 할 대상 아니다=**'나' 란 것도 알고 보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8. 행복만을 선택하지 마라=**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고르려는 선택을 멈추세요.

**9. 진정한 용기, 나를 놓아버리는 것=**아는 것도,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을 때 도리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학술연찬회
주제: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일시: 11월 16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느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느낌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책은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바라본 '느낌'에 대한 성찰이다.

이필원 외 /신국판양장/336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명장의 괘불 진수 맛본다

**임석환 불화장 괘불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임석환 作, 통도사 영산회상도 모사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평생 불모의 삶을 살아온 임석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 불화장의 괘불 전시회가 열린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2관에서 열리는 제7회 붓다아트페스티벌 전통문화장인전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2019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전시에서 임석환 불화장이 선보이는 작품은 영산회상도, 보신불, 수월관음도, 신중탱화 등으로 모두가 괘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도상으로 옮긴 영산회상도는 높이 3.4M에 달하는 대형 괘불이다. 또한 수백 생에 걸쳐 쌓은 공덕으로 부처를 이룬 보신불, 물에 비친 달을 단아하게 내려다보는 수월관음, 불법을 수호하는 수많은 호법신들을 표현한 신중탱화 등이 족자 형식으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석환 불화장의 작품과 더불어 그의 예비 전수자들의 작품 62점도 함께 전시된다. 2018년 임석환 불화장의 '수산당문도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제자들의 작품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2019년 1월부터 전수생 교육을 받고 있는 65명의 제자들이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주제로 그린 현대 창작불화와 전통 옻칠종이 위에 자유 주제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비천도, 관세음보살도 등의 불화에서부터 사군자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불화는 불교의 교리나 부처님의 발자취, 가르침 등을 그린 그림으로,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술이다.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기까지의 생애를 그린 불전도가 있고, 경전 속 이야기를 그린 그림, 사찰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 넣은 동식물의 그림 등 그 종류와 의미가 다양하다. 또한 한국불교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양식을 달리하며 한국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불화는 단청장에 포함돼 전승되어 오다가 200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畫匠)' 단일종목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분리 지정됐다. 이 때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단 두 사람으로, 故 석정 스님과 임석환이다.

임석환 불화장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상경한 후 진관사에서 불교 미술의 대가인 혜각 스님을 만나면서 단청에 입문했다. 40여 년간 단청과 불화 분야에 매진한 끝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조계종 성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석환 불화장은 "불화를 내보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자비를 아름답게 보고 환희심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다.

수산당문도회 역시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통재료를 사용해 채색감이나 색 발인법 등을 공부해서 내보이는 자리이므로 불자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이 본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명상과 불교,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축제로 평가받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예(불교공예, 전통공예, 현대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건축(건축, 인테리어) △의복(승복, 천연염색, 한복) △식품(차, 사찰음식, 사찰식품, 전통식품) △수행의식(수행NGO, 장례, 사찰, 명상단체) △문화산업(디자인, IT, 여행, 출판, 미디어, 웹)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bexpo.kr)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2231-2013.

# 한국불교근현대 선지식 20인을 만난다



석전 박한영 스님.

**탄허기념불교博 '입전수수'展**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호국, 개혁, 포교 등 3개 주제**

한국불교근현대사 선지식들의 사진을 모은 사진전이 열린다. 탄허기념불교박물관(관장 혜거)은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광명전과 방산굴에서 '입전수수(入廛垂手)' 展을 개최한다.

2017년 '팔풍취부동(八風吹不動)' 전, 2018년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하라' 전에 이은 이번 사진전은 선지식들의 활동을 크게 호국, 개혁, 포교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백용성, 백초월, 봉려관 스님, 해방 이후 대처승과 육식의 허용 등 왜색(倭色) 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정화 운동을 펼친 청담 스님, 수옥 스님, 포교에 힘쓴 석전 박한영, 청하 스님 등 각 사찰과 문도회의 자료 협조를 받아 수집한 스님 20분의 사진 50점을 전시한다.

관장 혜거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선대 선지식들의 성향으로 인해 사진 등 자료가 유실될 가능성이 커 3개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우리 불교계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2) 445-8486.

박재완 기자

## 생명나눔, 난치병 환우 치료비 모금 자선음악회




**11월 10일 나루아트센터서**
**올해에 처음으로 제정된**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도**

**2부는 본격 음악회로 진행**
**진보라 · 주병선 · 주권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정**

난치병, 이식대기자 환우를 돕기 위한 자비의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오는 11월 10일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난치병, 이식대기자 환우를 돕기 위한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는 환우와 가족,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해마다 개최한 한다솜 희망음악회의 취지와 뜻을 이어받은 자비행사다.

음악회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약 120분간 진행되며, 1부에서는 환자치료비 전달식,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생명나눔 대상에서는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음악회가 진행된다.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춤사위와 행복나눔 태권도연합회의 태권도 시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출연진도 화려하다. 진보라 재즈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주권기(통기타 가수), 주병선(가수), 이장학(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 디딤소리(모듬북)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나눔과 감동이 있는 자비의 법석에 많은 분들이 참석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전

**11월 17일까지 작품 접수**
**12편 선정, 오는 12월 시상**

사명 대사(1544~1610)의 임진왜란 당시 활약을 재조명하는 애니메이션 경연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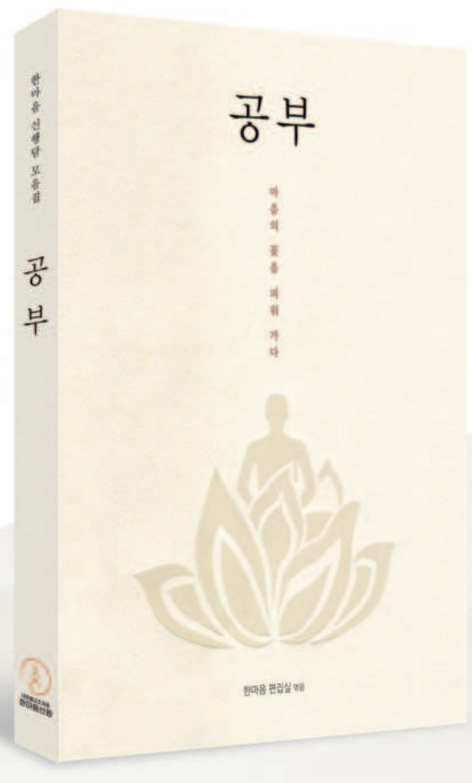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BTN불교TV와 공동으로 기획한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 전시를 기념해 열린다.

사명대사 애니메이션 공모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와 심사 및 시상은 청소년부(어린이 포함)와 성인부(대학생 포함)로 구별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받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애니메이션 작품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출 작품 중에서 총 12점을 선정하며 청소년부·일반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장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부상과 함께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입상작 중 우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내에서 상영된다.

신성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유럽 · 미국 '불교 수용사' 조망하다

## 동국대 인문硏 · 신라문화硏 '서구로 간 붓다' 학술대회

**니체 · 베버 불교 인식 조명**
**염세주의 등으로 규정하거나**
**'지식인 구원론' 비판 제기**
**문헌학 · 시대적 한계 '분명'**
**美불교 세속화 문제점 지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 서구사회에서 불교는 종교이자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유럽과 미국에 선센터에서 서구인들은 명상을 하며, 동남아시아의 선원에서 수행하는 서구인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서구사회가 어떻게 불교를 수용했는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와 신라문화연구소는 10월 3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D501에서 '서구로 간 붓다'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권의 불교 수용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용희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는 니체와 막스 베버의 불교 인식을 통해 근대 유럽의 불교 인식을 살폈다.

김영진 교수는 니체의 저서 〈안티크리스트〉에서 나타난 니체의 불교 평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니체는 불교를 기독교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종교를 비판했던 니체에게 불교와 기독교 모두 '데카당스(decadence, 타락)' 한 종교이지만, 그나마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이었던 것은 불교를 통해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어서다.

니체가 접한 불교는 '초기불교'로, 그는 불교를 수백 년간 지속됐던 철학운동의 결과로 봤다. 이를 통해 니체는 불교를 '현실주의'이자 '현상론'이며, 선악을 규정 않는 '저편의 것'으로 인식했다.

김 교수는 "니체는 기독교는 '죄에 대한 싸움'을 설교하는 데 반해 불교는 '고(苦)에 대한 싸움'을 설교한다. 하나는 죄의 극복을 지향하고 다른 하나는 고의 극복을 지향하는 셈"이라면서 "니체는 바로 '죄'와 '고'에서 가상과 현실, 또는 형이상학과 실제의 대립을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니체에게 불교는 '타락'한 종교였다. 니체는 힘을 향한 의지가 결여될 때 인간은 타락한다고 봤다. 인간 타락의 요소가 기독교에서는 '신'이며, 불교에서는 '염세주의'였다.

김 교수는 "더 센 힘을 원하는 니체에게 무욕의 평정을 원하는 불교는 저급한 게 아니라 한가해 보였을 것"이라며 "그가 말한 '현실도피적 불교'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와 통한다"고 봤다.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에 대해서도 니체는 '도피'나 '황홀경' 정도로 인식했다. 김 교수는 "근대 유럽 학자들이 열반을 일종의 죽음 상태나 의지 제로 상태로 묘사했다"면서 "당시 신비주의적 해석들이 난무했는데 니체의 열반 이해도 이 같은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니체의 눈에 보인 불교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니체의 불교 평가는 상당히 독창적이고 참신하다"며 "그래서 그의 평가는 불교 자체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용희 교수는 독일 불교수용사 내에서 막스 베버의 불교 인식을 살폈다. 베버가 보여준 불교 인식은 유럽사회와 비유럽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활용됐다. '경제적 합리주의'의 발현이 화두였던 베버는 고대-소승-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불교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식인의 구원론'을 꼽았다. 불교는 "특권층이나 지식인의 구원론이라는 특성을 가졌고, 평신도에게는 구원의 길이 봉쇄돼 있었다는 것"이 베버의 불교 인식이라는 것이다.


니체 막스베버

박 교수는 "베버는 기독교의 경우 현실 거부가 도피로 연결되지 않고 관장이나 지배로 이어졌고, 이를 보여준 것이 칼뱅주의였음을 강조한다. 칼뱅주의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작동한 경제적 합리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비유럽사회에서 불교가 이와 필적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베버가 밝힌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버는 초기불교를 넘어 세계종교로 발전한 불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발전을 이룬 불교의 문화적 측면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당시 아시아 불교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던 시대적 한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권 불교 수용의 단면을 살핀 연구도 발표됐다. 김희영 대구한의대 교수는 '미국 선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미국 선불교 역사를 되짚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 선불교가 소개된 것은 19세기 말이나 대중화된 시기는 1950년대다. 그 계기는 스즈키 다이세츠가 마련했고, 이후 시마노 에이도 · 스즈키 순류 · 쑤안 후아 · 틱낫한 선사 등이 미국서 선을 가르치며 미국에 선불교를 전했다.

1950~60년대 미국 선불교는 비트세대와 반문화운동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성장하나 상당히 왜곡된 형태였다. 1980년대 선센터에 벌어진 추문들로 위기를 겪었으나 이는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통해 극복했다. 이는 선의 미국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 선불교의 특징을 △선센터 중심 △현지인 수행 지도 비중 증가 △사회참여 불교 지향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 참여 선 수행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세속 지향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서 "참여선은 재가자 위주의 선 단체들이 수행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현실적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미국 프로테스탄티즘 문화와 융합돼가는 미국불교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불교운동이 불교를 현실 친화적으로 전환시켰지만 동시에 불교의 세속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점에서 미국 선불교는 불교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종교의 도구화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最古 한글 필사 '능엄경' 보물 된다

**문화재청 10월29일 지정예고**
**고양 원각사 성보博 소장본**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 지정**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손글씨 자료를 담은 능엄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사진, 이하 수능엄경)을 비롯해 조선 시대 도자기와 전적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수능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 중 하나로, 보물로 지정된 경전은 총 10권 중 권 1~2에 해당한다. 현재는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원각사의 〈수능엄경〉은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종에게 대자(大字, 큰 글씨)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 · 간행한 것이다.

특히 원각사 〈수능엄경〉은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경전의 여백에 붓으로 정교하게 쓴 한글과 한문 주석과 석독구결(釋讀口訣 · 우리말의 조사, 어미 등을 나타내는 토를 붙여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 빼곡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세기 말까지만 쓰였던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문화재청 역시 보물 지정예고에서 이 같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항아리인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와 풍수지리서 '지리전서동림조담'을 각각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보물 제2040호로 10월 31일 지정 공고했다. 신성민 기자

# 고성 옥천사 근현대 자료 디지털화

## 동국대 전자불전硏 · 옥천사 업무 협약 체결

고성 옥천사(주지 원각)에 소장된 근현대 기록 사진 등이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황순일, 이하 전자불전연구소)와 고성 옥천사는 10월 25일 옥천사성보박물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불전연구소가 진행중인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소는 옥천사성보박물관 소장 근현대 불교문화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옥천사성보박물관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옥천사 사진자료와 옥천사 근대 고승관련 사진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불전연구소 토대연구팀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투영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 옥천사 주지 원각 스님(사진 오른쪽)과 황상준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교수(사진 왼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형성된 결과물과 연계해 근대불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불교학술원 제17회 불교인문학특강

## 11월 6일 문명대 교수 초청 강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원류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제17회 불교인문학특강을 개최한다.

'석굴암의 긴 여정- 간다에서 경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특강에는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초청돼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 문 명예교수는 석굴암과 같은 석굴사원의 원류를 조명한다. 문 명예교수는 인도의 엘로라 · 아잔타 석굴을 시작으로 중국 운강 · 용문 석굴에 이어 경주 석굴암에서 종착됐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동아시아 근세불교 어떻게 형성됐을까

## 동국대 불문연, 추계세미나

한 · 중 · 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세불교를 비교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8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근세 불교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 · 중 · 일 불교학자들이 각국의 근세불교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김용태(동국대)의 '조선시대 불교와 국가의 길항관계',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중기 사찰판 불교서적 간행의 역사적 의미'가 발표되며, 중국 측에서는 순궈주(정법대)의 '군신(君臣)과 사우(師友) 사이- 명 · 청 교체기 불교의 정치 담론'과 왕치원(복단대)의 '승속(僧俗) 소통의 시각에서 본 강남 불교단체- 초기 방책장(方册藏) 판각을 중심으로'가 발표된다.

일본에서는 호자와 나오히데(일본대)의 '일본 근세 불교 교단을 둘러싼 여러 제도와 그 배경'과 히키노 교스케(동북대)의 '근세 일본에서의 상업출판 성립과 불교교단의 변용'이 발표된다.

학술 발표 이후에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원장을 좌장으로 '동아시아 근세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 24절기 사찰밥상
⑳ 상강(霜降)
도토리묵꼬치 · 연자들깨찜 · 월과채

# 무릎 시릴 때 도움 되는 '들깨'

도토리묵꼬치 · 연자들깨찜 · 월과채차밭에는 꽃이 한창이다. 설화쌍봉수라고 하였던가. 꽃과 열매가 각각 제 일을 하고 있다. 하늘빛은 더욱 높아지고 바람조차 쾌청한 날씨가 계속된다. 일교차가 심한 덕에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만들어지는 가을의 깊숙한 자리에 와있다. 봉정에서 시작된 단풍은 제주 한라까지 보름을 넘기지 않고 온 산중을 붉게 물들인다.

호두를 좋아하는 청설모는 연일 바쁘게 움직인다. 아무래도 올해 호두도 맛을 보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에라, 도토리나 주우러 가야겠다. 주섬주섬 채비를 마치니 고동재 보살님이 앞서 가신다. 오랜만의 산행이다. 봄 산행은 꽃에 취해서 즐겁고 가을 산행은 한가득 소득이 있어 즐거운 일이다.

상수리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도토리를 줍다 보니 많은 일들이 스쳐지나간다. 오며가며 마주치는 다람쥐도 반갑고 멀리 떼 지어 지나가는 멧돼지는 개체수가 많아 걱정이라고도 한다. 산을 오르는 횟수가 더뎌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산기슭마다 동물들 겨울채비를 돕자고 일체 채집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은 자신들 산에 오르며 도토리를 주어모아 장날 이고지고 나오신다. 바짝 마른 도토리를 한 됫박에 2만원씩 팔고 있는 모습에 추억을 소환하기도 한다.

노스님께서 월명암 불사를 하시면서 매일 산에


도토리묵꼬치


연자들깨찜


월과채

오르실 때마다 갓 출가한 새내기인 20대 우리 셋을 앞장세우신다. 하루는 불평을 쏟아내며 "노스님 우리 도토리 안 줍고 안 먹으면 안 되는지요?"라고 항변했다. 노스님의 답은 이러했다. "이런 경을 칠 놈들, 누가 너희들 먹이려고 묵 쑤나? 한창 불사중이라 시주님들 오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묵이라도 쑤어 줄라꼬하지!"

십시일반 모인 시줏돈 덕에 월명암의 법당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철없던 우리 눈에는 너무 심신이 고달파서 중노릇 못하겠다고 호소한 시절이었다. 30년을 훌쩍 넘기고 보니 그때 노스님의 심정이 이해된다.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쉬운 줄 아나? 그저 진심과 신심으로 하심하며 하는 게 불사니라."

도토리묵은 큰 가마솥에 쑬 때마다 불 조절을 잘해야 누르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매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을 빼는 시기를 기다린다. "야야, 불빼라" 소리에 맞춰 장작을 잡아 끄집어내고 숯도 적당히 퍼내면 묵이 넘치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다.

묵도 두부도 그 시절의 음식은 하나같이 많은 양에 쉴 틈 없이 철따라 만들었다. 지금은 편리한 조리도구 덕에 수월해 졌지만, 아무래도 손수 만드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도토리묵을 만들 때 빠지지 않고 무를 뽑아서 묵꼬치에 쓸 물김치를 담근다. 잘 익은 무와 묵을 꼬치에 꽂아 하얀무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어도 좋다.

들깨타작을 하고 나면 기름을 짜고 거피를 낸 들깨가루를 한 자루 만들어 놓는다. 겨우내 들깨가루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연자를 불리고 연근을 잘게 썰고, 밤을 썰어서 들깨가루와 쌀가루에 재래간장을 넣어 만드는 들깨찜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무릎에 바람 들어오는 일을 막아주기도 한다.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다보니 무릎이 시리다고 한다. 적절한 보합관계의 식이요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리가 내리면 호박잎이 모두 간밤에 색이 변하고 시들어져 있다. 미리미리 호박과 호박잎을 따다가 저장해 놓지 않으면 허망한 호박잎을 보게 된다. 월과채라는 이 시기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찹쌀떡을 구워서 채소와 버섯을 넣고 겨자소스를 만들어 무친 다음 호박을 구어서 말아서 만드는 보양음식이다.

10월의 풍성한 행사소식이 들린다. 개산대재, 승시, 약초축제, 전국이 들썩거린다. 사찰음식도 단연 한 몫하는 계절이 왔다.

### 도토리묵꼬치

재료: 도토리묵 1모, 무김치 2컵

1. 도토리가루와 물을 1:5로 만들어 묵을 쑨 다음 굳으면 깍두기처럼 만든다.
2. 무김치에서 무만 건져내어 꼬치에 꽂는다.
3. 접시에 담을 때 물김치국물과 함께 담는다.

### 연자들깨찜

재료: 연자 2컵, 연근 300g, 밤 5알, 쌀가루 2큰술, 들깨가루 2큰술, 재래간장 1큰술, 들기름 2큰술, 채수 2컵(건표고 30g, 다시마 30g, 물 3컵을 부어 5분간 끓인 물)

1. 연자는 불린 다음 물에 한번 삶아 놓는다.
2. 연근은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놓는다.
3. 밤은 4쪽으로 자른다.
4. 궁중팬에 채수 한 컵과 들기름, 재래간장을 넣고 끓으면 연자와 연근, 밤을 넣고 뒤적이며 덖는다. 끓기 시작하면 나머지 채수에 들깨가루와 쌀가루를 섞은 다음 팬에 붓고 익힌다.
5. 밤이 노랗게 익으면 불을 끈다.

### 월과채

재료: 호박 1개, 당근 30g, 오이 30g, 팽이버섯 반봉, 찹쌀가루 40g, 물 40㎖, 소금 0.7g, 후추 0.1g, 겨자소스 갠 것

1. 호박은 0.3㎝ 두께로 길게 썰어 참기름과 소금, 후추로 마리네이드 한 후 프라이팬에 구워낸다.
2. 찹쌀가루는 물과 동량을 넣어 갠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찹쌀 전병을 만든다.
3. 당근과 오이, 표고버섯은 곱게 채 썰어 소금에 절여 볶는다.
4. 구운 호박 위에 찹쌀전병을 얹은 후 야채와 버섯 재료를 겨자소스에 버무려 전병 위에 다시 얹는다.
5. 호박을 돌돌 말아 반으로 자른 후 접시에 담아낸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⑥ 뇌건강과 생활습관

# 행복이 뇌를 젊게 만든다

현세의 삶은 쉽지는 않다. 주변 환경, 자신의 건강, 경제 사회적인 면, 가족관계 등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옳고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사는 것, 즉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뇌 건강에 도움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의 인간의 뇌의 무게는 1.4~1.5kg 정도로 직립 보행을 하던 초기 인류의 뇌 무게가 500g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지금 인류의 뇌는 무게와 부피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뇌 피질을 펼쳤을 때의 면적은 작은 식탁보 정도(2,500㎠)이며 뇌의 촉감은 두부와 비슷하고 무게는 자기 체중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기능은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고 사색하고 기억 판단하고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인간답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중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감각기관인 눈, 코, 귀, 혀 등의 기관이 사물의 형태, 냄새, 소리, 맛 등의 감각을 측정 · 감지 · 수용하지만 그런 감각을 분석하고 느끼는 것은 눈, 코, 귀, 혀가 아닌 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체의 특성에 따라 감각 대체 기술이 신기술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즉 혀를 통해 사물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 측정한 IQ 점수를 자기 뇌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장수하는 현재 시대에 뇌에 대한 여러 정보에 대해 점차 관심이 커지는 상황으로 뇌의 기능과 기능 유지 노화 지연에 대해서, 더 나아가 노인성 치매(Alzheimer Dementia) 등 인지 기억 장애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뇌 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글먼은 '인간은 왜 미완성으로 태어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미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출생한다. 동물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고 헤엄치는데 인간만이 걷지 못하는 상태로 1년 가까이 살아야한다. 이유는 뇌기능 때문이다. 대부분 포유류는 이미 출생 시 프로그래밍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 반면 인간의 뇌는 생후에 프로그래밍 된다.

출생 직후 영아의 뉴런(뇌 신경세포)은 서로 이질적으로 연결(synapse)되어 있지 않다가 지속적인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2년 사이에 뉴런 수가 무려 100조까지 증가한다. 그 중 성인이 되어 자신의 언어나 기후 등 생존환경에서 불필요한 50%가 퇴화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뉴런의 수는 더 감소하게 된다. 노화 시기에도 뉴런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뇌는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뇌의 노화 방지, 뇌 기능 유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피부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거의 같다. 중요한 것은 뇌에 좋은 활동을 하고, 뇌에 나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상에 타인과 경험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므로 뇌가 일치하는 사람 또한 단 한명도 없다. 성인의 뇌의 경우 뉴런이 100조개에 달하는 만큼 비슷한 뇌 조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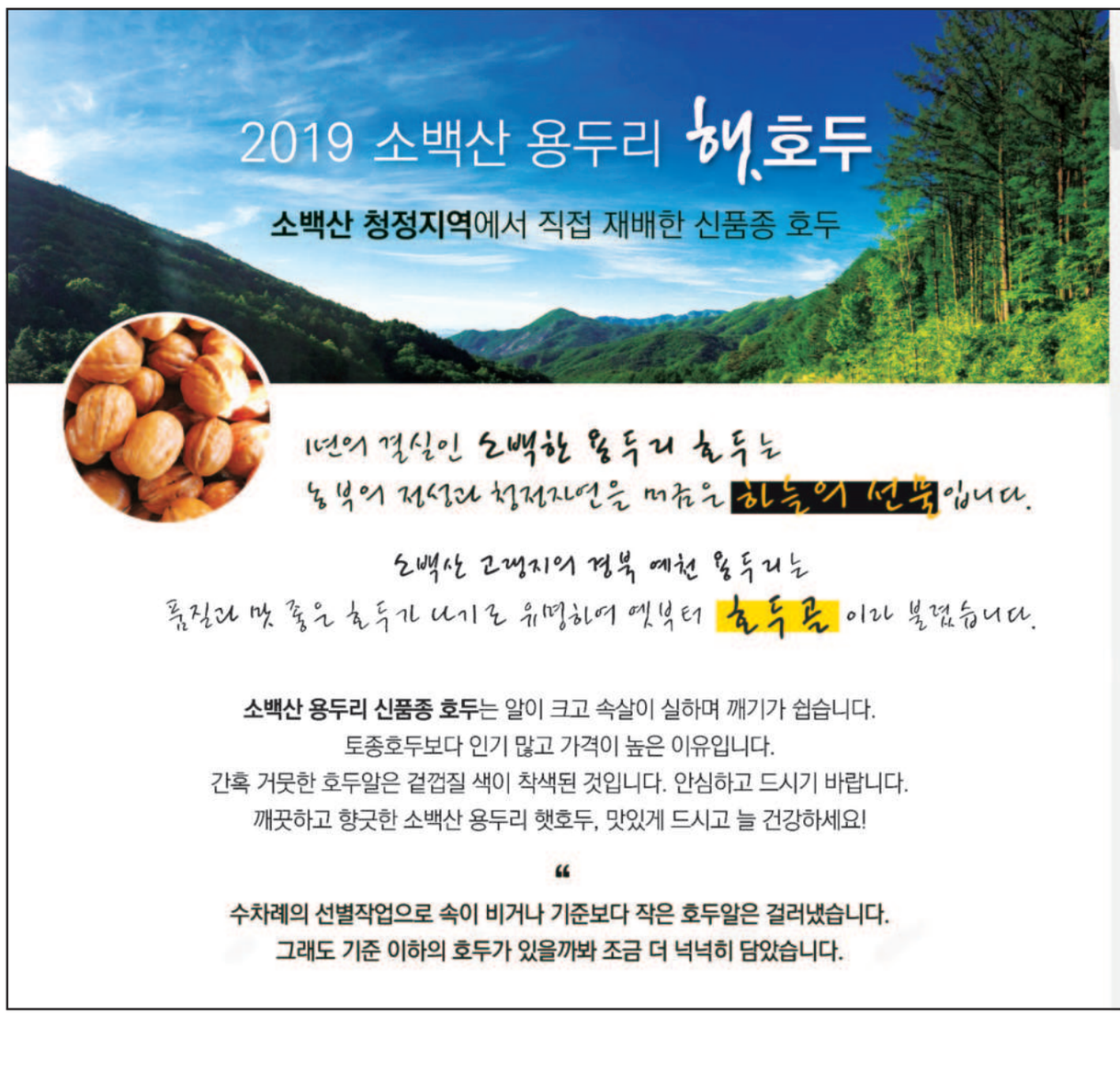
**올바른 식사 · 숙면 · 활동중요**
**불포화지방산 · 단백질 섭취도**

뇌 적성검사를 통해 뇌의 성향에 대해 파악한다. 예를 들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좌측 뇌형은 성취를 좋아하고 우뇌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의 경우 긴 머리 모습을 좋아한다. 뇌 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의학적으로는 stress reduction(스트레스 해소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스트레스는 뇌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며 뇌 위축은 뉴런 감소와 기억, 인지, 사고, 판단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 논리와 이론에 우세한 좌뇌형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성취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예를 들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는 등산, 속도 거리 성취형 운동), 적성에 맞는 가죽 또는 가구 공예, 요리, 프라모델 조립 등이 권장된다.

이런 성취성 취미 활동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뇌 적성과 뇌 단련에도 유용하다. 예술적인 뇌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예술적 취미 생활에 자주 접촉하며 논리적 뇌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토론 집담회나 학술강연회 등 논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야한다. 즉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능동적 활동으로 뇌의 특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뇌의 기본적 기능 영역으로 올바르게 먹고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잘 움직이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움직이는 것, 즉 올바른 활동과 운동이 되겠다. 운동과 활동은 뇌의 운동중추를 자극하고 자극을 받은 운동 중추는 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영양 면에서는 불포화지방산, 항산화물질(식품),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단백질은 뇌의 주요 구성 성분인 펩타이드를 보충해주고 항산화식품은 뇌의 노화를 예방하며, 불포화지방산은 뇌의 시냅스 수 감소를 예방하며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오메가 3는 뇌신경세포와 성분이 같은 DHA와 EPA가 들어 있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은 뇌세포의 간격을 평소보다 60%나 확장하게 해주는데 이에 따라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므로 기억을 정리하거나 정착시키는 작업 또한 수면 중에 일어나게 된다. 뇌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의 또 다른 방법은 인간이 느끼는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 등을 이용해 뇌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삶과 젊음과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과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그렇지 못한 삶과 비해 뇌 기능 유지와 노화 방지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올바른 감정 상태는 뇌 기능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